

구약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

창세기 1:1-2:3을 중심으로»

Reformed Life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Focused on Genesis 1:1-2:3

김진섭 (Jin Sup Kim)

백석대학교, 구약학

백석학원(백석대학교 및 7개 대학원[기독교전문, 신학, 목회, 교육, 사회 복지, 상담, 음악], 백석문화대학, 백석예술대학, 백석신학교)의 설립자요 (1976.11.1), 예장백석 총회의 초대 총회장(1978.9)을 역임한 장종현 박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주창해 왔다.

서론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이란 용어의 타당성을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 분류,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theology) 개념,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개혁정신’과 ‘분야주권’(Sphere Sovereignty) 이론에 근거하여 살 펴본다.

본론에서 첫째, 구약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방법론과 본

1) 본 논고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생명신학—창세기 1:1-2:3을 중심으로” 「제1차 백석대학교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선교문화원, 2008, 12): 15-74를 축약 개정한 것이다.

논고의 범위를 논한 후, 둘째, 창세기 1:1-2:3(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창조)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1) 창조사관(하나님의 우주창조-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하나님의 우주완성)과 그 중심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 창세기 1:1-3의 문예-신학적 관계, (3) 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시공간에 나타난 ‘생명’ 이해, (4)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생명’ 이해, (5) 우주창조에 나타난 성령님의 ‘생명’ 사역의 관점에서 상론한다.

결론에서 본 논고의 논지를 다시 요약한 후, 신앙고백적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끝맺는다.

주제어: 신학, 개혁주의생명신학, 개혁주의생명신학 방법론, 창조사관, 생명

*논문 접수일: 2010. 4. 7. 수정 접수일: 2010. 5. 11. 게재 확정일: 2010. 5. 17.

I. 서론

‘개혁주의생명신학’이란 신조어는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마땅히 시위해야 할 주 예수님의 복음이 생래적으로 지닌 ‘생명’을 오늘 여기의 개혁주의 신학과 이를 수용 지지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탄할 현실을 직시한 백석학원(백석대학교 및 7개 대학원[기독교전문, 신학, 목회, 교육, 사회복지, 상담, 음악], 백석문화대학, 백석예술대학, 백석신학교)의 설립자요, 예장백석 총회의 초대 총회장을 역임한 장종현 박사의 주장에 기인한다. 그가 학원(1976.11.1)과 교단(1978.9)의 설립에서부터 개혁주의신학을 표방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요, 따라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쉬 하무도트, *יִשְׁרָאֵל* : 단 10:11,19 참조)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이란 용어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와 연계하여 백석학원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의 정체성으로 설정 되기까지의 그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및 예장백석 총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²⁾

A. "개혁주의생명신학"이란 용어의 타당성에 대하여

1.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 분류에 근거하여

'신칼빈주의'(Neo-Calvinism)의 주창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 분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3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역작을 남겼다.³⁾ 카이퍼가 이해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 분류는 먼저 "학문의 유기적 한 실체의 다양한 부분"("an organic subdivision of the organism of science", 436)으로서,

2) 참조, 김진섭, 앞의 책, 15-29; 김진섭,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성장과 연합을 위한 비전과 사명—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개혁주의생명신학 정체성을 중심으로", 『백석신학저널』17 (2009, 가을호): 131-175.

3) 네델란드어로 출판된 1,500쪽 분량의 *Encyclopaedie der Heilige Grodgeleerdheid* (1894)의 영역본은 제1권의 1-39쪽과 제2권 전체만을 번역한 미완성 작품이다. 제1권은 "신학 백과전서"(Theological Encyclopedia)의 서론과 역사를 다룬다면, 제2권은 "신학 백과전서" 자체에 집중하여 백과전서의 명칭과 개념, 학문의 유기적 관계와 그 속의 신학, 신학의 개념과 원리와 방법, 신학의 유기성 및 역사를 조명하며, 제3권은 저자의 원칙에 따른 분야별 신학 분과의 논리적 구별과 순서를 다룬다. J. H. de Vries trans., *Encyclopedia of Sacred Theology: Its Principles* (Grand Rapids: Eerdmans, 1897). 필자가 사용한 대본은 Benjamin C. Richards의 동일 책명의 개정본(Reforming Science, 2008)이다.

논리적 순서로서 그 첫 분과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Principium)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자체를 관심하는 '주경신학'(Exegetical Theology)이요, 그 금자탑인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은⁴⁾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구성되며, 그 다음은 교회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추적하는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셋째 그룹은 성경의 교리를 우리의 의식에 맞게 체계화하는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내지 '교의신학'(Dogmatic Theology), 마지막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규례'(ordinances)를 따라 어떻게 유지되어야만 하는가를 적용하는 '강도학'(Homiletics)과 그 연계 분야의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혹은 '봉사신학'(Diaconal Theology) 내지 '경륜신학'(Economical Theology)이나 '전문신학'(Technical Theology)으로 이해한다.⁵⁾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이며"⁶⁾ 언약 교리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결정판 중의 하나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구성적 원리요. . . 개혁주의 교리 체계를 진술하는 가장 포괄적인 양식이다"⁷⁾라는 진술에서 보듯이, 언약신학의 주도적 정립과 발전은 교회사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체계에서 진행되어왔다.⁸⁾

4) '교의신학'에서 구별된 분야로 '성경신학'이란 용어는 1787년 Johann Philipp Gabler가 스위스 Altdorf 대학교에 행한 다음과 같은 제목의 취임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An Oration of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Specific Objectives of Each," in Ben C. Ollenburger et al., *The Flowering of Old Testament Theology: A Reader in Twentieth-Century, 1930-1990*,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2), 489-502.

5) 자세한 논의를 위해 436-442(특별히 438)쪽의 "신학의 각 부분에 있어서의 유기적 관계"(The Organism of Theology in its Part)를 보라. 흥미로운 것은 흔히 '실천신학'이라 부르는 분야에 대한 기능적 다양한 명칭을 소개하는 가운데 Kuyper는 '전문신학'(Technical Theology)을 선호한다(437쪽).

6) I. John Hesselink, *On Being Reformed* (Ann Arbor: Servant Books, 1983), 57.

7)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ew York: Oxford, 1931), 56-57.

8)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언약강조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하여, 류호준 편역, 「존 H. 스택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서울: 솔로몬, 2000), 80-120을 보라.

개혁주의 구약학자 반게메렌(VanGemerem) 편집한 구약신학 사전에 다음과 같은 주제에 따른 ‘~신학’이란 항목들을 발견한다.”

따라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이 신학의 주제를 따른 학문적 명칭으로서 ‘~신학’이란 용어의 사용에 전혀 구애가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 하면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주창할 수 있는 타당성을 조명하게 되는 것이다.

2.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theology) 개념에 근거하여

카이퍼는 “신학의 개념”(The Conception of Theology)에 대한 상술에서,¹⁰⁾ 먼저 성경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신학’(theology<췌올로기아, θεολογία)이란 단어의 (1)-logia의 의미; (2)theos의 의미; (3)theos의 의미가 ‘신이 직접 말하는’ 능동적인가 아니면 ‘신에 관해 말해지는’ 수동적인가를 질문 한다(162쪽). 그는 ‘로게이온’(Λογείον)이란 단어가 아테네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강단(platform)”이란 의미이므로, ‘췌올로게이온’(θεολογείον)은 “신들이 말하는 것을 대표하는 자가 말하는 강단”이기에, 생각 보다는 말하는 것이 강조됨을 지적한다. 그러나 ‘오스테올로기아’(ὄστεολογία, “뼈에 대한 탐구”), ‘푸시올로기아’(φυσιολογία, “자연적 원인과 현상에 대한 탐구”)의 경우처럼 신에 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의 행동을 가리킬 수도 있다. 주전 10세기 호머(Homer) 시대에는 ‘말하다’(레게인, λέγειν)란 어근은 거의 항상 ‘수집하

9) Willem A. VanGemerem ed., “Topical Dictionary”,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346-1322 가운데, “Idolatry: Theology”(715-717); “Qumran: A Theology of”(1115-1121); “Retribution: Theology of”(1140-1149); “Sign and Symbol: Theology of”(1224-1228); “Theophany, Theology of”(1247-1250); “Zion: Theology of”(1314-1321).

10) Kuyper, *Encyclopedia*, 161-238.

다'라는 뜻이었으나, 후대에 가서 '말하다'는 의미로, 그 후에 생각을 말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다'는 의미로 변천되었다.

'신학'(θεολογία)이란 단어는 이미 플라톤(주전 5/4세기)이 사용하는 바,¹¹⁾ 첫째, -logia의 의미가 '말하다'가 우선적이며, '신적 존재나 사물에 관한 탐구'(science of things divine)의 의미는 그 후대에 발전된 것으로 결론짓는다. 둘째, theos의 의미는 플라톤의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학'이란 서사시나 서정시나 비극에서 "신들에 관해 말하는 것"과 상호 교환되므로, '이방신들'을 가리킨다. 셋째, theos의 주체적 의미는 세오도시오스(θεοδός, '신의 선물'), 세오메니아(θεομανία, '신의 진노'), 세오크라티아(θεοκρατία, '신의 통치'), 세오크리시아(θεοκρισία, '신의 심판'), 세오가미아(θεογαμία, '신의 결혼'), 세오프락시아(θεοπραξία, '신의 행동'), 세오프로피아(θεοπροπία, '신의 말씀') 등의 실례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 목적격 의미는 세오세베리아(θεοσέβεια, '신을 경외'), 세오미메시아(θεομιμησία, '신을 닮음'), 세오클루테시스(θεοκλύτησις, '신께 기원'), 세올라트레이아(θεολατρεία, '신을 경배') 등에서 발견되므로, '신학'(θεολογία)이란 '신이 직접 말하는 것'이나 '신에 관해 말하는 것'의 양자를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세올로기아(θεολογία, '신학')나 세올로게인(θεολογεῖν, theologian, '신학자')은 세올로고스(θεολόγος)에서 유래했고, 어원적으로 세올로고스는 세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가 아니며, 로고스 '말, 이성, 생

11) Henry G. Liddell and Robert Scott에 따르면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7, p. 790b), 통시적으로 Plato(주전 5/4세기), *Republica* II 379a; Philodemus(주전 1세기) *de Pietate* 72, Polphyrius Tyrius(주후 3세기), *ad Marcellam* 15; Iamblichus(주후 4세기), *de Mysteriis* 1.1 등에 사용되고 있다. 동사 θεολογέω, "신들이나 우주론에 대하여 담론하다" (discourse on the gods and cosmology)는 Aristoteles(주전 4세기), *Metaphysica* 983b 29; *de Mundo* 391b 4에 나타난다.

각'이란 의미는 후대에 발전된 것이요, '신학자'(쉴로게인)란 본래 "신들을 위한 찬양시를 만드는 시인"¹²⁾을 가리킨다고 결론짓는다(163쪽). 사도 요한은 신적 신비들에 대해 어떤 사도들보다 존경받았기에, 요한복음(로고스)이나 요한일서(로고스) 때문이 아니라 계시록 때문에 '신학자'(호 쉴로고스, ὁ θεολόγος)로 존경 받았으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신학자'로 호칭되었다.¹³⁾

주후 2세기 이후에 이방세계에 기독교를 변증하고 옹호하려는 교부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헬라의 철학적 체계로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미 이방 철학에서 사용해온 '신학'이란 용어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체계를 담아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하나님에 관한 사색이나 교훈"이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¹⁴⁾

교부문헌에서 '신학자'(쉴로게인)와 '신학(쉴로기아)은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를 갖게 되는데, (1)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신학자',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행위 자체'이라면, '신학'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할 수 있었다.¹⁵⁾ 또는 (2) "하나님께 소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요점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신학'은 "하나님 본체의 신비에의 환원"을 의미할 수 있었다.¹⁶⁾ 만일 (3) "어떤 이를 하나님이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신학'은 '신적 별칭'을 가리켜서,¹⁷⁾ '그리스도의 신성'과 거

12) Augustine(주후 354-430), *de Civitas Dei*, XVIII., c. 14; Kuyper, *Encyclopedia*, 163 재인용.

13) Athanasius(주후 약 296-373), *Oratio de incarnatione Verbi*, I., p. 62; Kuyper, *Encyclopedia*, 161 재인용.

14) G. W. H. Lampe에 따르면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1, p. 626b-628a), 통시적으로 Origen(주후 2/3세기), *contra Selsum*, 2.71; Gregorius Nazianzenus,(주후 4세기), *Eusebiius Caesariensis* 11.7; *Orationes theologicae* 23.6 등에 사용되고 있다.

15) Theodor. *Therap*. See Suicer, I., p. 1359; Kuyper, *Encyclopedia*, 165 재인용.

16) Theodoret, *Quaest. In Genes*, I., p. 3; Kuyper, *Encyclopedia*, 165 재인용.

의 동의어가 되거나, '삼위일체의 신비'를 의미할 수 있었다.¹⁸⁾

그러나 교회 수위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옮겨지면서, '신학'(세울로기아)이란 생명력 있는 용어는 하나의 학문적 체계로서의 라틴어 *Theologia*로 전락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서구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카이퍼는 "거룩한 신학"(*Sancta Theologica*; 'Sacred Theology')에 '거룩한'(sancta, sacred)이란 수식어에 대한 집착적인 조명 속에서, 신학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영감된 용어로 즐겨 사용한 'sancta'를 다시 회복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¹⁹⁾

칼빈 역시 왜 '신학'(theologia) 대신 '종교'(religio)로,²⁰⁾ '헌신'(devotio) 대신 '경건'(pietas)이란 용어를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최종 제5판에 이르기까지 고정용어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²¹⁾ 요약된 대답은 12세기에 설립된 대학들에서 로마 가톨릭 도미니크 학파의 아퀴나스(1224-1274)가 집대성한 스콜라주의 신학의 애용어인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윤리학을 도입하여 오컴(William of Ockham, c. 1285-1349) 시대에 이르러 유명론과 함께 이성에 기초한 사변적 변증학으로

17) Pachymeres, note on Dionysius Areopagita (Suicer, I., p. 300): Kuyper, *ibid.*

18) Theodoret, *Comm. in Heb.*, iv, 14, p. 414; Athanasius, *de Definitionibus*, Tom. II., p. 44; Kuyper, *ibid.* 참조. 협의적으로 '신학'(theology)이란 용어가 성부(성부론), 성자(기독론), 성령(성령론)에 관한 '신론'(theology proper)을 의미할 수 있다.

19) Kuyper, *Encyclopedia*, 234-238, 따라서 그의 책명 역시 *Encyclopedia of Sacred Theology*로 명명한 이유를 알게 된다.

20) 라틴어 판의 경우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9, 1543, 1559);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1545); *Institutio totius christianae religionis* (1550) 불어 판의 경우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1541, 1545, 1551, 1560).

21) 자세한 논의를 위해 김진섭, "칼빈과 경건: 그 신학적 기초", 「칼빈과 21세기」(전광석 엮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149-194, 특히 155-166 참조.

발전하므로, 결국 사변적 '신학'과 로마 가톨릭의 외형적 '헌신'의 엄청난 괴리와 함께 그 본래의 의미가 동반 퇴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멜란히톤, 그리고 츠빙글리에 의해 중세 스콜라주의의 '신학'이란 용어의 남용이 집중 공격을 받아 사용을 기피하면서, '종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특별히 츠빙글리가 그의 저서 *De vera et falsa religione Commentarius* (1525)에서 기독교 신앙을 'christiana religio'로 표현하면서, '종교'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경건을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었다. 스콜라주의의 '신학'의 남용과 앞 세대 개혁자들의 비판과 함께 '종교'는 "신앙, 생명, 율법, 예배, 성례"가 포함되므로,²²⁾ '신학'이란 용어를 칼빈은 회피하였고,²³⁾ 특별히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아 religio라는 용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⁴⁾

흥미로운 것은 '신학'이란 용어는 '공통 주제'(loci communes), '체계'(systema)라는 단어와 연계했다면, '종교'는 '강요'(institutio), '개요'

22) Samuel M. Jackson & Clarence N. Heller, eds., *Commentary on True and False Religion* (Durham: Labyrinth Press, 1981), 57을 인용한 이은선, "칼뱅의 경건과 학문", 『신학지평』 18 (안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2005): 78, n. 23.

23) 기독교강요 초판에는 자신의 반대자들의 교리를 묘사하는 부정적 의미로 단 한 번 프랑소와 1세에 대한 헌정사에서 사용되며(OS 1.29, *speculativam theologiam*[사변신학]), 최종판에서는 단지 6회 사용된 바, "거룩한 신학을 위한 후보생"(OS 2.1, *sacrae theologiae candidatos*)이란 관용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멸적으로 사용하였다: (1) '사변신학'(OS 2:21, *speculativam theologiam*): (2) '이집트인의 신비신학'(mystica etiam Aegyptiorum theologia, 1.5.12): (3) '이집트신학'(Aegyptiaca theologia, 1.8.3): (4) '비밀신학'(arcanae illius theologiae, 4.7.27): (5) '신학'(theologica, 2.13.3).

24) 이은선, 전제서, 78, n. 24는 츠빙글리의 취리히와 가깝고 그 영향권에 있는 바젤에 칼빈이 1535년 초에 온 것과 츠빙글리의 참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이 주석을 읽었을 가능성을 다음의 참고 문헌과 함께 제의한다. Alexandre Ganoczy, trans. David Foxgrover and Wado Provo, *The Young Calvi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7), 93; Fritz Busser, "Element of Zwingli's Thought in Calvin's Institutes," in *In Honor of John Calvin, 1509-1564*, ed. E. J. Furcha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87), 1-27.

(compendium) 및 '고백'(confession)과 그러했기에 칼빈이 '종교'와 '강요'라는 두 단어를 기독교강요 책명에 고정시킨 듯하다.

앞서 살핀 대로 우리는 '신학'의 능동적 의미로서 "영감된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것"과 수동적 의미로서 "그 하나님에 관한 비 영감된 인간이 개념화하거나 공식화 하는 것" 사이를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 영감된 인간 사고는 자기 중심의 죄성에 오염된 것이며, 땅에서의 인간 체험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신적 개입이 없이는 비 영감된 사고는 신적 세계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인간 이성의 한계성이 영감된 성경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과 격리될 때 더욱 악화된다.²⁵⁾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 이성에 대한 지나친 과신은 성경 신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형태의 자기기만에 빠져 성경을 왜곡하는 결과를 빚었다(참조. 칼빈, 「기독교강요」 2.2.25). 그 전형적인 예가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 1844-1918)의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에 근거한 신학적 재구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Jahweh)로 규정하는 기원전 9세기의 야웨 문서(J: Yahwist)에 근거한 '야위스트 신학'; 8세기의 엘로힘으로 지칭하는 E문서(Elohist)에 근거한 '엘로히스트 신학', 그리고 요시아 왕 시대(주전 640-609)에 기록된 신명기 법전(Deuteronomy Code)의 D문서에 근거한 '신명기학과 신학', 그리고 5세기경의 제사법전(Priest Code)에서 나오는 P문서에 근거한 '제사장적 신학' 등.

구약 성경의 각 권에 따른 신학이나, 장르(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25) 이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로서, 김진섭, "성령님적 성경해석과 목회", 「기독교신학저널」7 (2004년 11월): 23-81을 보라. 최근 신학계에서 논의되는 소위 '생명신학'(Life Theology)은 환경과 생태계 위기에서 출발한 종교다원화 발상의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우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가서, 지혜서, 묵시문학)나 인간 저자(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등)를 중심한 신학²⁶⁾ 등을 논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딤후 3:16; 뵤후 1:21)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신학이란 성경이 명시하는 "성령님의 계시, 영감, 조명"의 진리 아래에서 수행하는 신학인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곧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²⁷⁾

우리는 교회사의 신학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새 시대가 도전하는 새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신학, 즉 하나님의 본성과 인류를 다루심"에 대한 새로운 공식화(formulation)를 요청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종교다원화(특별히 이슬람과 유대교와 로마가톨릭의 연합과 일치 아래)의 와중에서, 사변적 신학에 기인한 교회의 공동화(空洞化)를 목도하는 21세기의 위기와 도전에 맞서서,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인 '언약신학'의 틀 안에서, 성경전체가 '대하(大河) 이야기'(meta-narrative)로서 "하나님의 우주/인간창조(창 1-2장)—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하나님의 완성(계 21-22장)"이라는 "구속사적 하나님 왕국의 종말론적 실현"이라는 성경해석 방법론을 가지고, "생명으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론적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다.

26)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96); Willem A. VanGemeren ed., "Topical Dictionary",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346-1322; T. Desmond Alexander, et al, eds,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0).

27) Bruce K. Waltke,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7), 39-40.

3. 개혁주의 신학의 '개혁 정신'과 '분야 주권'(sphere sovereignty)²⁸⁾ 이론에 근거하여

일상적 의미로서 '개혁'(reformed)과 '보수'(conservative)의 두 단어는 서로 반대어이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한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될 수 있다. 즉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세상 심판”(히 6:1-2) 등과 같은 '기본 교리'(cardinal doctrines)²⁹⁾에 관하여 절대 보수적인 개혁주의자들이 동일하게 '오직 성경'(sola Scriptura)대로³⁰⁾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왔기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quia ecclesia semper reformata)“는 개혁을 고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장종현 박사의 주창의 배경에는 그의 설교나 특강에 자주 강조되는 질문들인 (1) 신학이 왕성한 곳일수록 교회는 왜 죽어 가고 있는가?: (2)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

28) '신 칼빈주의'(Neo-Calvinism) 주창자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의 뒤를 이은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에 의해 정립된 개혁주의 세계관으로서, 삶의 모든 '분야'(sphere: 도예베르트에 의하면 15개 '양식들'[modalities]/'국면들'[aspects]의 분야 주권, 즉 arithmetic (quantity), spatial (extension), kinetic (movement), physical (energy), biotic (life), psychic (feeling), analytical (distinction), historical (culture), lingual (symbol), social (intercourse), economic (thrif), aesthetic (harmony), juridical (justice), moral (love), and fiducial (certitude) 양식과 괄호에 명시한 핵심 의미)는 각기 고유하게 구별된 책임들과 권위 혹은 권한을 가지며, 삶의 다른 분야들과 동등하게 서있다고 믿는다. '분야주권'은 하나님에 의해 '각기 종류대로' 설계되고 다스리는 창조질서 전부를 아우르는 개념을 내포한다. 이 창조질서는 사회적 공동체(교육, 예배, 사회정의, 농업, 경제와 노동, 결혼과 가족, 예술적 표현 등)와 그들의 역사적 발전 및 내재하는 규범들을 포함한다. '분야주권'의 원리는 창조적 경계들과 역사적 차별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애쓴다.

29) 참조. 히 5:12,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의 기본요소들”(타 스토이케이아 테스 아르케스 톤 로기온 투 쉐우, τὰ στοιχεῖα τῆς ἀρχῆς τῶν λογίων τοῦ θεοῦ): 6:1a,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 말씀”(톤 테스 아르케스 투 크리스투 로곤, τὸν τῆς ἀρχῆς τοῦ Χριστοῦ λόγον): 6:1b, '기초'(췌멜리온, θεμέλιον).

30) 참조. 고전 15:3,4, '성경대로'(카타 타스 그라파스, κατὰ τὰς γραφὰς).

치는 신학대학원들에서 왜 교육인적자원부에 고발사건이 제일 많은가?: (3) 신학교수들이 학문 전달에 있어서, '뜨거운 가슴'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 자기개혁이 없이 '차가운 머리'의 진리만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등은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육 현장에 '개혁'을 요구하는 증거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신학'의 실천이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백석학원의 신앙적 표준을 마련하고, 신학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한국 신학계에 공헌할 수 있는 신앙고백문"을 작성할 목적으로 "백석학원 설립30주년기념 준비위원회" 산하에 "신학정체성 분과위원회"(2004년 4월 20일)를 조직한 후, 2006년 5월 설립된 백석신학연구소가 총 4부로 구성된 「백석학원 신앙선언문」을 작성하였다.

제1부("우리가 걸어온 길")는 백석학원의 역사적인 신학적 전통(장종현-김준삼-최순직)의 핵심에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있음을 지적하며, 제2부("우리가 물려받은 유산")는 전통적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과 다음과 같은 9가지 조직신학적 주제를 따라 현대 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도전에 맞는 어법의 신학적 대답으로서 제시 한다: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인간과 죄; 4. 예수 그리스도; 5. 성령; 6. 구원; 7.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8. 이 세상의 끝; 9.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타락-구원³¹⁾-완성.

제3부는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4 항목의 전문(前文)과 함께, 본문으로

31) 요한복음 1:14-17의 본문으로 종교개혁 490주년을 맞아 백석학원 서울 교직원 예배에서 행한 설교문인 김진섭, "은혜와 진리의 사람", 「백석춘추」8 (2008년 3월; 서울: 백석출판사): 662-680을 참조.

32) 목차에 나타난 '구원'이란 표제어는 본문의 표제어(79쪽)에 사용된 '구속(救贖)'이란 용어로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의 방법이 '주 예수님의 보혈로 값 주고 사'는 시장매매 개념을 원어(가알, כָּפַר; 파다, פָּדָה; 루트로오, λυτρόω)가 내포하기 때문이다.

서 'I. 성경에 관하여'(8항목), 'II. 창조(10항목)-타락(7항목)-구속(20항목)³³⁾-완성(6항목)', 'III. 우리의 기도와 사명'(17항목)에 대한 선언문을 소개한다.

제4부(111-193쪽)는 제1부에서 제3부까지(15-39, 41-82, 83-110쪽) 논의에 거의 맞먹는 분량의 내용으로, 제3부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이 삶의 구체적 4가지 영역의 14가지 주제에서 어떻게 생명력 있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적시 한다: "종교적 차원"(1. 영성운동; 2. 종교다원주의), "윤리적 차원"(3. 성(性)과 가정; 4. 생명윤리), "학문과 문화"(5. 기독교와 과학; 6. 교육; 7. 기술문명; 8. 문화와 예술), "사회적 차원"(9. 교회와 정부; 10. 통일운동; 11. 경제; 12. 사회복지; 13. 여성주의; 14. 환경). 이것은 개혁주의 세계관의 '분야 주권'(sphere sovereignty) 이론과 함께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총체적인 "기독교 생명공동체 문화" 수립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증거 한다.

주변의 문화는 변화하므로 성경의 메시지를 타협함이 없이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신학 체계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개혁주의 신학자 포이스레스(Poythress)는 전통적 서구신학이 주로 죄책(guilt)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의미로 오랫동안 구조화 되어온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과 비교하여, 이제 현대세속주의자들의 관심사인 '삶의 의미'와 관련된 '가족신학'(familial theology)이나, 제3세계의 부족문화의 주 관심사인 '악령의 세력을 이기는 법' 등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언하면서, 이런 연구는 로마서 7장, 시편 23편, 삼상 17장 등의 알려진 본문의 새로운 진리 발견이 가능하다고 결론 맺는다.³⁴⁾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신학'의 틀에서 지금까지

33) 세부적으로 '구속'(8항목), '그리스도'(7항목), '성령'(5항목)으로 구성된다.

34) Vern S. Poythress, *Science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of Scientific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Foundations of Contemporary Interpretation v. 6; Grand Rapids: Zondervan, 1988), 160-161.

지 보아왔지만, '생명 신학'의 주제별 재조직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이해를 주어진 성경본문에서 얻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더욱 찬양하게 될 것이다(롬 11:33-36). '개혁주의' 세계관은 언제나 성경과 이에 근거한 일반계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에 의해 언제나 '개혁'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며, 따라서 더 '성경적인 세계관'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다.³⁵⁾

II. 본론

A. 구약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방법론과 본 논고의 범위

1. 구약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방법론

우리가 구약성경을 어떤 안경(관점, perspective)³⁶⁾을 끼고 읽는가에 따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기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신선한 도전과 풍성한 위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35)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서울: SFC, 2003), 235: "참된 성경적 세계관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의 의미에 대한 바른 발견에 근거해서 항상 개혁되어 가는 것이 때문이다."

통칭 '기독교 세계관'(Christian worldview)과 차별된 성경적 세계관(Biblical worldview)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 주창자인 James B. Jordan, *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Eugene, OR: Wipf & Stock, 2000) 및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서울: 성광문화사, 2005), 161-198('성경적 세계관') 참조.

36) Thoma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까치, 1999)의 출간이 던진 성경해석학의 긍정적 파장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따른 성경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개괄적인 논의를 위해 Vern S. Poythress, *Symphonic Theology: the Validity of Multiple Perspectives in Theology* (Philipsburg: P & R Publishing, 1987)와 동일 저자의 *Science and Hermeneutics* 를 보라.

우리가 살피려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핵심어인 '생명'(하이, חַי)이란 관점에서 '생명'과 관련된 모든 어의론적 용어들(유사어, 반어의, 연계어)과 개념들(죽음, 질병, 치유, 회복, 구원, 살림,³⁷⁾ 완전, 복,³⁸⁾ 부활과 영생³⁹⁾ 등이 구약성경에서 보다 민감하게 파악되고 연구될 수 있다.

37) '살림'의 기본 개념은 '완전성'인바, 육체적 완전(건강), 환경적 완전(번영), 정신적 건강(평안), 영적 건강(구원)의 의미를 문맥에 따라 보여준다. 참조, L. Koehler, W. Baumgartner and J. J. Stamm, "חָיָה",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4 (Leiden: Brill, 1999): 1506a-1510b.

38) 구약이 말하는 '복'의 기본 개념은 '팽창'이요, '저주'는 '축소 내지 팽창의 정지'이므로, '생명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참조. 창세기에 나타난 '복'(바라크, בָּרַךְ)의 연계어(collocations)는 복의 특성이 '팽창/확장'임을 보여 준다: פָּרַח(파라, 생육: 1:22, 28: 9:1: 17:20; 26:24; 28:3; 31:11; 48:4); רָבַח(라바, 번성: 1:22, 28: 9:1: 17:20; 22:17; 24:60; 26:4; 28:3; 30:30; 31:11; 48:4, 16); מָלַא(말래, 충만: 1:22, 28: 9:1); גָּדַל(가달, 창대: 12:3; 18:18; 24:25; 특히 26:13 [3x]); עָצַם(아좁, 강성: 18:18); מָאָה שְׁעָרִים(메아 쉐아림, 백 배: 26:12; 비교, 신 1:11, '천 배 [엘레프 페아밈, אֶלֶף פַּעַמִּים]; קָדַל עַמִּים/נַוּוּם(케할 암밈/고임, 민족/열방의 무리: 28:3; 35:11; 48:4); פָּרַץ(파라쯔, 편만: 28:14; 30:30); גָּד, 행운, < גָּדַד(?), 가다드, '차르다': 30:11); דָּגַה(다가, 증식: 48:16); 비교, כָּבַשׁ(카바쉬, 정복: 1:28), רָדַד(라다, 지배: 1:28), פָּתַח(파타흐, [태를] 열다: 29:31; 30:22); '하늘의 별 같이'(15:5; 22:17; 26:4), '바다의 모래 같이'(22:17; 32:52), '땅의 티끌 같이'(13:16; 28:14).

한편 창세기에 나타난 저주 용어는 그 특성이 '축소/중단'임을 보여 준다: אָרַר(아라르, '저주로 묶다': 3:14, 17: 4:11, 5:29; 9:25; 12:3; 27:29; 49:7); קָלַל(칼랄, '가볍게 하다': 8:21; 12:3), אָלַל(알라, '묶다': 24:41; 26:28), לוּם(로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잡아묶다': 참조, 저주스런 이름의 롯이 복의 상징인 삼촌 아브라함에게 붙은 동안 복을 받으나[창 12:4; 13:1-6], 그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저주스런 상태로 돌아간다[13:10-13]. 즉, 아브라함의 출애굽[창 12:10-13:4]을 요셉의 출애굽[창 41:54 - 출 12:42]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로, 롯은 '중단한 잡족 [עַרְבִּי]의 모형으로 각각 나타난다: 롯은 모암과 압몬 족속의 족장이요[창 19:36-38], 여호와와 총회에 금지된[신 23:4-5] '중단한 잡족 [עַרְבִּי: 에레브, 느 13:3]으로서, 출애굽의 '중단한 잡족 [에베브, עֵבֶר: 에베브, 출 12:38]에 해당된다): מָנַע(마나, [태를] 단음': 30:2).

39) 구약에 나타난 '부활 영생의 산 소망'에 대한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라: (1) 창 2:16-17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구체적 계명인데, 그것은 "먹고 먹어라"(생명과 에덴동산 모든 실과)와 "먹지 말라"(선악과)의 복음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먹고 영생하라"는 복음이며(창 3:22 참조), 이것이 24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진 '율법서'(즉 모세오경)에서 결론적으로 재천명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 (=중생)를 주심으로써만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음과(신 30:6), '생명 즉 선과, 사망

예를 들어 '치유'란 "죽어가는 현상에서 다시 살아 '원상[정상성]복귀' 하는 생명현상"으로 본다면,⁴⁰⁾ '구약의 치유신학'⁴¹⁾이란 관점에서 '구약의 생명신학'의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창세기 1:29의 창조원리로서의 '채식과 생식'이 창세기 9:2-4의 타락과 구속의 원리로서의 '육식의 허용과 그 부작용'과 어떤 긴장관계가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40년 광야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단골 메뉴인 만나에서(출 16:35) 가나안에 들어가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게 되기까지(수 5:11)의 과정에 관

죽 약 사이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명령하시며(신 30:15-19), 하나님이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라"(신 30:20)는 결론은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첫 복음적 원리의 재천명이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내(예수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요 6:54)로 완전히 성취되었다: (2)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한 에녹(창 5:24)이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왕하 2:11)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3)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은 엘리야를 통해(왕상 17:22), 수벳 여자의 죽은 아들은 엘리사를 통하여(왕하 4:34-35) 각각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고후 1:9). 살았으나 죽은 자 같았던 90세의 사라와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롬 4:19) 아들 이삭을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셨다(마 22:32).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번제용 제물로 '도살' (사하트, *nsq*: 창 22:9-10)하려는 아브라함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히 11:19)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창 22:5의 원문,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참조); (5) 행 2:27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 인용된 시 16:10이나("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죽음에 이르는 병에 직면한 욥의 고백이나(욥 19:26,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니엘의 예언(단 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부활 영생의 산 소망에 대한 증거들이다.

40) 참조, Michael L. Brown, *Israel's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28-29: "A careful analysis of the biblical material indicates that in every instance rp' [שָׁפַט] is used with reference to *restoring* a wrong, sick, broken, or deficient condition to its original and proper state."

41) Brown, *Israel's Divine Healer* = 김진섭 역, 「구약의 치유신학」(서울: 대서, 2010);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강의안인 김진섭, 「구약의 치유신학」(서울: 한국성경학연구소, 2010);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A Medical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8) = 김태수 역, 「성경과 치유」(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1-122를 보라.

심을 가질 것이며, 가나안의 7가지 신토불이 '자연 식품'(whole foods: 신 6:3; 8:7-10)인 "생수(시내, 분천, 샘), 곡류(밀, 보리), 과실(포도, 무화과, 석류), 채소, (올리브)기름, 우유, 꿀(비교, 함 3:17의 과실[무화과, 포도, 감람], 농작물[밭의 식물], 젖과 고기[양, 소])"이 오늘의 우리 건강식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창세기 2:16-17의 생명과일의 '영생'과 선악과일의 '사망'이라는 양자택일적 원리가 신명기 30:15-16, 19-20에서 재천명되면서, 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이미 영생을 가졌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요 6:53-57; 고전 11:26) 종말론적 성취를 보다 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개혁주의생명신학'과 연계하여 '구약의 선교신학'이란 관점으로 구약을 읽는다면,⁴²⁾ 구약 전체가 "인간이 선교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주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과 영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 선교'(Missio Dei)의 대하(大河) 이야기(meta-narrative)"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신/왕, 설계사, 시공자, 감리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왕국의 심장부인 신전/왕궁을 '지적 설계' 도면을 따라 완성하시고 만족하시며 안식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유일하신 삼위일체(하나님[1절], 하나님의 영[2절], 가라사대[3절]) 하나님의 은혜왕국 건설은 바로 선교신학의 중심 주제로서, 고대근동 지역(이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아나톨리아)의 만신(萬神, pantheon)이나 지금의 선교현장이 가진 이상적 문화/종교 현상에 대하여 선교변증학적(elenctic) 메시지를 던진다. 창세기 2-3장의 에덴동산은 하나님 왕국의

42) 참조. 김진섭, "구약의 선교학적 읽기", 『기독신학저널』8 (2005 봄): 7-33; 구약의 선교신학에 대한 결정판인 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L: IVP, 2006)를 보라.

심장부인 성전으로 이해된다(창 3:8, 24). 그 성전의 관리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왕(창 2:15; 롬 16:20)-선지자(창 2:19-20; 롬 10:15)-제사장(창 2:23; 롬 15:16)의 3직(職)을 가지고 문화-선교적 사명(cultural-missional mandate; 창 1:28; 벰전 2:9)을 수행하게 되어있다. 그 왕국 건설의 '생명력'을 위하여 노동(창 1:28; 3:16-19상)-안식(창 2:2-3; 3:19하)-결혼(창 2:24-25; 3:16)이란 문화-선교적 제도가 소개된다.

이제 '구약의 생명신학'과 직결된 '구약의 성령신학'에 대한 논의를 생각해보자.⁴³⁾ 1980년대에 교회성장학의 관심과 함께 성령론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한국교회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령신학에 대한 연구는 신약에 비해 너무나도 빈곤하고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출간된 저서나 논고를 조사해 보면 자명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신학계에서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구약의 성령님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주석적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봉사신학의 성령신학 논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한다면, 구약의 성령신학에 대한 우리의 만시지탄의 새로운 관심은 '생명신학'에 사활적인 것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복음주의 오순절 신학자인 힐데브란트(Wilf Hildebrandt)는 세 가지 관

43)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직신학적 생명신학의 구약적 이해를 위해서는, "구약의 그리스도와 생명신학",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생명신학" 등의 독립된 연구 역시 요청될 것이다. 참조, Christopher J. H. Wright의 구약의 삼위일체론의 3부작인 성부(*Knowing God the Father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7]), 성자(*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5]), 성령(*Knowing the Holy Spirit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6]).

44) Wilf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Mass.: Hendrickson, 1995) = 김진섭 역, 「구약의 성령신학 입문」(서울: 이레서원, 2005); 김진섭, "구약의 성령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말씀: 주제별 설교 시리즈: 성령,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250 (2010년 4월호): 22-41.

점에서 구약의 생명신학 연구에 독특하고 유익한 공헌을 한다. 첫째, '하나님의 영'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구약신학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된 모든 본문을 규정하고 분석하는 건전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의 방법론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핵심적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רוח)의 문맥적 실례를 수집하여 성령님의 본질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구약의 성령신학을 논리적인 주제별로 잘 배열하고 관련본문의 건전한 주석적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을 우주와 그 중심점인 인간 창조(제2장), 인간 중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선택하는 신앙공동체(제3장), 신앙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십(제4장), 리더십의 중심점인 선지자와 예언(제5장)의 주제로 살핀다. 셋째, 앞서 논한 주제들의 논리적 골격이 신약에 어떻게 확대되고, 명료해지며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제6장) 신구약 성경의 영감과 정경적 관계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며, 신약의 성령론을 통한 '개혁주의생명신학' 연구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과 특별히 선택된 신앙 공동체와 맺은 '일방적(monergic), 종주권(suzerain), 하사품(grant)'의 특징을 지닌 구약의 '언약신학'과 성경 전체를 대하(大河) 이야기(meta-narrative)로 엮어가는 구속사관(창조-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완성)을 묶어 고찰하거나,⁴⁵⁾ '하

45) I. 창조(창 1-2장)

1. 창조언약

- 1.1. 우주 창조(창 1:14; 8:22; 렘 33:20-21, 25-26; 31:35-37; 호 6:7)
- 1.2. 인간 창조(노동[창 1:28; 2:15,19-20], 안식[2:2-3, 15], 결혼[2:18, 20-25])
- 1.3. 생명과를 포함한 동산의 모든 '먹을 실과'와 금단의 '선악과' (창 2:16-17)

II. 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2장 - 계 20장)

2. 아담 언약(창 3:14-19)
3. 노아 언약(창 6:17-22; 8:20-22; 9:1-7, 8-17)

나님의 임재(Presence of God), 특별히 하나님의 '신현(theophany)⁴⁶과 관련하여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신약의 성취에 이르는 구약의 기독교론적 접근⁴⁷이나 메시아 사상,⁴⁸ 구약의 삼위일체론,⁴⁹ 하나님의 왕국⁵⁰ 등의 성경신학적 주제를 통하여서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2. 본 논고의 범위

우리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이란 원대한 과제를 하

4. 아브라함 언약(창12:1-3; 15:1-21; 17:1-14; 22:15-19)

4.1. 이삭 언약(창 26:2-5)

4.2. 야곱 언약(창 28:13-22)

5. 모세 언약(출 19-24장)

5.1. 모압 언약(신 5-28장; 29:1[MT 28:69]의 “호렙에서 언약 ... 모압 땅에서의 언약”)

5.2. 세겟 언약(수 22-24장)

6. 다윗 언약(삼하 7장)

7. 새 언약(렘 31:31-34; 겔 36:24-28; 히 8:8-12; 눅 22:20; 고후 3:6)

III. 완성(계 21-22장)

참조. 입문 서적인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Nutley, NJ: Presbyterian & Reformed, 1980) = 김의원 역, 「계약신학과 그리스도」(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동일 저자의 보다 쉽게 풀어 쓴 *Covenants: God's Way with His People* (Philadelphia: Great Commission, 1987) = 오광만 역,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서울: 그리스심, 2002); 송제근, 「시내산언약과 모압언약—출애굽기 19-24장과 신명기 5-28장 연구」(서울: 솔로몬, 1998). 개혁주의신학의 입장에서 언약신학에 대한 다양한 자신의 논고를 정리한 Mark W. Karlberg, *Covenant Theology in Reformed Perspective: Collected essays and book reviews in historical,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2000); 탁월한 주경으로써 보다 발전된 언약신학을 체계화한 Meredith G. Kline,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Overland Park, KS: Two Age, 2000) = 김구원 역, 「하나님 나라의 서막」(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7).

46) 고대 근동 문헌의 배경에서 본 구약의 언약과 신현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고찰을 위해 J. J. Niehaus, *God at Sinai: Covenant & Theophany in the Bible and Ancient Near Eas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김진섭 역, 「시내산의 강림하신 하나님: 성경과 고대근동의 언약과 신현」(서울: 이레서원, 2009)을 보라.

나눔이 인도하시는 대로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성경 대하(大河) 이야기 (meta-narrative)인 구속사관으로 묶어 원문 주석을 통하여 계속하여 살피고자 한다. 구속사관은 창조(창 1-2장)—인간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창 3장—계 20장)—완성(계 21-22장)의 직선적 소망의 사관이라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개혁주의생명신학’을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제한된 시간과 지면으로 인하여, 창세기 1-2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창조’(1:26-28, 2:7)와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피조물의 ‘선지자-왕-제사장’인 인간의 3직(職), 그 인간 생명의 영속적 보존과 증식을 위해 인류 범죄 이전에 ‘문화적 제도’(Cultural Institutions)로서 제정한 ‘창조규례’(Creation Ordinances)인 ‘노동’(1:28; 2:15,19-20), ‘안식’(2:2-3,15), ‘결혼’(2:18,20-25)과 인류에게 최초의 복(생명)과 저주(사망)의 계명으로 주신 ‘창조언약’(창 2:16-17)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려고 한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 그 첫 출

-
- 47) Greidanus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7개의 신약적 원리들로 다음을 제시한다: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유비, 통시적 주제, 신약 관련 구절, 대조.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S.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9) = 김진섭·류호영·류호준 공역,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서울: 이레서원, 2002); Christopher J. H. Wright,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5)를 보라.
- 48)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W. C. Kaiser, Jr.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류근상 역, 「구약성경신학—구약에서의 메시아」(서울: 크리스찬, 2001) 및 루터파 신학자 E. W. Hengstenberg의 고전적(독일어 초판 1828-35)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and a Commentary on the Messianic Predictions* 4 vols. (Grand Rapids: Kregel, 1956)를 대체한 개혁주의 신학자의 최신 저작인 G. Van Groningen, *Messianic Revelation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1990) = 유재원·류호준 공역, 「구약의 메시아 사상」(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을 보라.
- 49) 앞서 논한 각주 43 참조.
- 50) 최근 개혁주의 신학 구약학자의 논의를 위하여, Kline, *Kingdom Prologue: R. I. Vasholz, Pillars of the Kingdom*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7)를 보라.

발점인 창세기 1:1-2:3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창조와 생명신학”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B. 창세기 1:1-2:3(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창조)이 말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⁵¹⁾

(1절) [하나님 왕국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잘라서 모양을 내셨다.

(2절) 그런데 그 땅은 모양이 없고 비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독수리 같이] 선회하고 계셨다.

(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어둠을 나누셨다.

(5절) 그리고 그는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으니, 첫째 날이었다. [창 1:1-5 원문 사역]

1. 창조사관(하나님의 우주창조-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하나님의 우주완성)과 그 중심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주창조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왕국의 심장부인 왕궁/신전 건축 진행 과정으로 묘사되고, 에덴동산은 그 성전의 실례로 나타난다. 그 성전의 관리자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왕-선지자-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왕국 건설에 관련된 노동-안식-결혼이란

51) 원문의 자세한 주석과 그 학문적 논의에 대하여 김진섭, 「모세오경」(백석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서울: 한국성경학연구소, 2010 봄), 30-61을 보라.

문화적 제도가 소개된다.

인간 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불신양하며 불순종하였던 인류 타락(죄-사망)의 기원과, 동시에 아담을 은혜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여자의 씨’(창 3:15)로 오실 주 예수님을 중심한 구속 역사가 전개된다. 따라서 구약(창 3장-말 4장)은 사탄의 왕국 건설을 향한 인간의 전적 타락/부패/무능과 하나님의 은혜 왕국 건설을 향한 무조건적/제한적/불가항력적/영단번적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주역으로 긴장과 기대 속에 엮어간다. 신약(마 1장-계 20장)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세가 시작되고(히 1:2),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강림, 교회의 탄생과 ‘땅 끝까지’의 성장을 통하여 사탄의 “건고한 진이 파괴되고”(고후 10:4), 마침내 사탄과 불신자들이 지옥 즉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데(계 20:10,15)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승리를 확신한다. 말세의 끝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는 인간타락과 하나님 구속의 양극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우주완성(‘영화, 재창조’라고도 부르는)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된다. 타락과 구속이 뒤엉킨 인류역사에서 쓰라리게 맞보던 것들—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해와 달, 밤, 등불: 눈물, 병, 사망, 애곡: 불신자, 불경건자, 불의한 자, 공포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개 같은 자, 거짓말쟁이: 속된 것, 가증한 일, 저주—은 다 없어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창 1:1,31) 창조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계 21:11,23)을 완성하는 것이다.

2. 창세기 1:1-3의 문예-신학적 관계

창세기 1:1은 고대근동 문헌의 어떤 창조 내러티브도 갖지 않은 독립 절로서 우주창조(창 1:1-2:3)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적 명제와 요약이다. 창조의 구체적 사역을 소개하는 1:3-2:3에 선행하는 2절은 창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창조의 신학적 의미는 “무에서 유의 창조”(creatio ex nihilo)이지만,⁵²⁾ 셈족의 ‘잘라서 모양을 내다’(바라, כָּרַךְ)⁵³⁾란 어원적 의미의 ‘완성적 동사’(telic verb)⁵⁴⁾와 히브리어 본문이 묘사하는 우주창조는 고대근동의 동시대적 신전/왕궁⁵⁵⁾ 건축의 지적⁵⁶⁾ 설계도면⁵⁷⁾을 따라, “잘라서 만든 구체

- 52) 구약에 48회 사용된 ‘창조하다’(바라)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므로, 창조의 신학적인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무에서 유의 창조”(참조, 요 1:3; 골 1:16; 롬 4:17; 히 11:3)이며, 그 최초 언급인 마카비 하 7:28의 원문과 직역은 다음과 같다: ἀξίω σε τέκνον ἀναβλέψαντα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 καὶ τὰ ἐν αὐτοῖς πάντα ἰδόντα γινῶμαι ὅτι οὐκ ἐξ ὄντων ἐποίησεν αὐτὰ ὁ θεός καὶ τὸ τῶν ἀνθρώπων γένος οὕτω γίνεται, “내 아들이야, 내가 네게 권하노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서 만드셨고, 사람들의 후손도 이와 같이 존재된 것을 보고 알라.”
- 53) 성경히브리어 최고 권위의 자전인 Koehler-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vol. 1 (Lieden: Brill, 1994), 153-4에서 כָּרַךְ를 동음이의어적(homonymic) 어원으로 나누어 각각 Qal, “to create”와 Pi’el, “to shape by cutting”(예: 수 17:15, 18; 겔 21:19[24]; 23:47; 민 16:30)으로 구분한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 R. C. Van Leeuwen, “כָּרַךְ”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1 (ed. W. A. VanGemeren: Grand Rapids: Zondervan, 1997), 728-35를 보라.
- 54) 즉 창조 행위의 시작이나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완성된 창조 행위를 가리킨다(비교, 신 4:32; 시 89:12; 사 40:26; 암 4:13).
- 55) 히브리어 ‘집’(בַּיִת, בית)은 ‘왕궁’(창 12:15), ‘신전’(창 28:22)의 의미를 가지며, 수메르어 é-gal(‘큰 집’)이 아카드어 ekallu(‘왕궁’)와 성경히브리어 לְבַיִת(해칼, ‘성전’)로 차용되었다. 고대근동의 왕궁과 신전이 인접한 사실은(비교: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하나님이 신으로 이해되거나 왕으로 이해되는 양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56)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캠퍼스의 법학교수인 필립 존슨(Phillip E. Johnson, *Defeating Darwinism by Opening Minds* = 「다윈주의 허물기」(서울: IVP, 2000)의 효시로 1990년대 초 등장하여 Michael Behe, William Dembski, *Intelligent Design* = 「지적설계」(서울: IVP, 2002), Stephen Meyer 등에 의해 진행해 온 지적설계운동(Intelligent Design Movement)의 활발한 연구는 כָּרַךְ 동사와 함께 연계된 여러 히브리어 어휘 연구(예, נָחַם[아

적 모양”으로 시공하시는 우주창조를 이해한다. 따라서 2절에서 구체적 형태를 갖지 않은 땅(셋째 날 창조된 땅 대조, 1:10), 어둠(첫째 날 창조된 어둠 대조, 1:4-5), 깊은 물(둘째 날 창조된 물[1:6-7]과 셋째 날 창조된 물[1:9-10] 대조)은 셈족의 이해로는 비존재로 간주함이 마치 양복점에 아직 잘라서 양복을 만들지 않은 상태의 세워둔 재단용 옷감이 비존재인 것과 같다.

창세기 1:1-2:3의 문예-신학적 구조는 모두 창조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왕궁/신전 건축의 왕적인 설계(계획)-시공(질서)-감리(조화)의 주체로 인식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⁵⁸⁾

- ① 선언(“하나님이 가라사대”): 건축의지가 담긴 설계에 따른 “성령님과 말씀”(1:2, 3; 참조, 시 33:6; 요 1:3; 20:22; 히 11:3; 벧후 3:5)에 의한 시공
- ② 명령(“... 있으라”[예히, וַיִּצְוֶה]를 중심한 다양한 명령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

사], אַרְצָא[아짜르], אֶרֶץ[파알], אֶשֶׁת[심], אֶרֶץ[쿤], אֶרֶץ[아사드], אֶרֶץ[무트], אֶרֶץ[바나], אֶרֶץ[하카크]에서 그 신학적 연관성을 다룰 수 있다. ‘겉보기 설계 (apparent design)와 ‘최적화된 설계 (optimal design)와 구별되는 ‘지적설계 (Intelligent Design)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지적설계 연구회’ (www.intelligentdesign.or.kr)를 참조하라.

- 57) 노아의 방주(창 6:15-16), 모세의 성막(출 25:9,40), 솔로몬의 성전(대상 28:12,19),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학 1:8; 숙 4:9,10)과 관련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겔 40:4) 모두가 각각 시공 이전에 하나님이 손수 계획하신 설계도면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참조, 히 11:10, “이는 그가 기초들을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의 설계사와 건축사는 하나님이시다”(ἐξεδέχετο γὰρ τὴν τοῖς θεμελίουσιν ἔχουσαν πόλιν ἧς τεχνίτης καὶ δημιουργὸς ὁ θεός): 계 21:2.
- 58) 하나님과 우주창조를 설계, 건축, 완공의 시각으로 해석해 온 유대교의 “미드라쉬 랍바”(Midrash Rabbah)에 대하여 Wilfred Shuchat, *The Creation according to the Midrash Rabbah* (New York: Devora, 2002), 23-27을 보라.

- ③ 분리(바달, 𐤁𐤃; 1:4,6,7,14,18): 영역분리(낮과 밤, 물과 물, 물고기
와 새)와 경계선/질서의 확립종류대로”(명령-분리, 건축 진행)⁵⁹
- ④ 결과(“그대로 되니라”): 말씀—사건의 완성,⁶⁰ 명칭을 주심(“부르셨
다”).⁶¹ ‘생명의 번식’의 복을 주심(창 1:22, 28).⁶²
- ⑤ 평가: 부분 사용 검사필증(“보시기에 좋았더라”); 완공—사용 검사
필증(“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니라”)⁶³
- ⑥ 시간표⁶⁴—“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건축 진행일지); “마치고
안식하시니라”(입주-안식).

59) 분리는 창조와 이스라엘의 실존에 근본적인 개념이다(창 3:15; 12:1; 레 20:24-25; 민 8:14).

60) 히브리어 ‘다바르’[דבר]는 ‘말씀’과 ‘사건’이란 이중 의미가 있다(사 40:26; 44:24-28; 48:13; 50:2; 55:11; 렘 36:1-7[주전 609년 가을; 7:1-7 참조]; 20-26, 27-32[주전 601년 가을]; 겔 37:4; 시 33:6, 9; 104:7; 147:4, 15-18; 148:3-5; 요 1:14[말씀이 육신이 됨]); 고 후 1:20; 딤후 2:9; 참조 롬 4:17; 골 1:15-17; 히 11:3; 벧후 3:5.

61) 하나님의 ‘이름 짓는 일’(창 1:3-5; 2:18-25)은 왕적 통치를 보여준다(참조. 민 32:38; 왕하 23:34; 24:17).

62) 창세기의 ‘복’이란 단어의 기본 의미가 ‘팽창’임에 대한 논의는 본 논고 각주 38 참조.

63) 아카드어 *šubbū*는 감리와 건축에 대해, *šutešbū*는 설계에 따른 실행에 대해 사용되는 건축 용어이다. 예를 들면 *bīlam ahīl alaktašu uštassiḡma*, “그 신전은 내가 조사했고, 그 법령은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Takil-ilissu of Malgium* 비문; R. Kutcher and C. Wilcke, “Eine Ziegel-Inschrift des Königs Takil-ilissu von Malgium, gefunden in Isin und Yale”,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68 (1978): 95-128의 115쪽 48-49행). 흥미로운 것은 아카드어 *amāru*와 *šubbū*가 인간창조 신화에도 나타난다(W. R. Mayer, “Ein Mythos von der Erschaffung des Menschen und des Königs”, *Orientalia* ns 56 [1987], 24, 25, 26, 35’ 행)

64) 고도의 문예성이 창조의 역사성과 공교하게 맞물려있는 창 1장의 창조기사에서 7일이 연대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1세기 Rashi가 이미 지적한 대로 창 1장의 비연대적 배열의 증거가 보인다. 창 1:1-2:3과 2:4-25의 두 창조기사를 비교하여 에덴 동산의 각종 과실나무가 제3일에 창조되었다면, 제6일에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과실이 맺혀 있는 셈이나, 2:9는 분명하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מאס) 하시니라”로 밝히므로, 3일 만에 모든 열매가 다 맺혔다고 해석함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2:19) 역시 아담이 지음 받은 당일, 그것도 낮 동안에 이렇게 했다고 해석함은 부자연스럽다. 첫째 날에 저녁과 아침을 지으셨으나(1:5), 제4일에야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지으셨다(1:14). 첫 5일의 ‘날’에는 정관사가 없으므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진술보다는 고대근동의 신화와 이방종교를 경책(警策)하는 신학적

출애굽기 본문의 36.7%에 해당되는 성막 건립에 대한 기록은(출애굽기 총 1213구절 중에서 457구절에 해당) 창세기 1-2장의 창조 기사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주므로,⁶⁵⁾ 창세기 1-2장의 우주 창조는 고대 근동의 왕궁/신전의 건축-설계, 진행과 완공-의 표상(imagery)으로 묘사되며, 출애굽기 25-31장의 성막의 설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요(출 25:9, 40; 비교: 대상 28:11-12; 18-19; 히 11:10), 성령님에 의해 진행, 완공된 천국(우주) 창조의 모형과 그림자로 묘사되어(히 8:5) 성경 해석학적으로 두 본문 이해에 상승(相乘, synergism) 작용을 하고 있다.

우주는 곧 하나님의 왕궁/성전/왕국이요, 그 우주의 신학적인 중심지인 지구 역시 하나님의 왕궁/성전/왕국이요, 지구의 신학적 중심지인 에덴동산이 또한 하나님의 왕궁/성전/왕국이다. 따라서 신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왕국'이 모세오경과 구약 전체의 일관성 있는 주제임을 상징할

인 강조가 더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모습으로 묘사하는 창조의 '은유적'(metaphorical) 표현은 창조의 역사성을 보다 문예적 기교를 통해 신학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 65) 첫째,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7번의 연속 과정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바요메르 엘로힘, מֵאֵלֹהִים וַיֹּאמֶר; 1:3, 6, 9, 14, 20, 24, 26; 참조: 11, 28, 29)로 시작하듯이 성막 건립도 7번의 연속 과정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바에다베르 아도나이, וַיֹּאמֶר יְהוָה; 출 25:1; 30:11, 17, 22, 34[바요메르 아도나이, וַיֹּאמֶר יְהוָה; 31:1, 12[바요메르 아도나이])로 시작한다.
- 둘째, 창 2장의 에덴동산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막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① '베델리업'(베돌라흐, בֵּדֶלְיָהּ; 창 2:12상; 성막 재료용 순금—출 25:3); ② '호마노'(쇼함, חֹמָה; 창 2:12하; 성막 재료용—출 25:7); ③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창 2:10-14; 성소 안의 영적 강—시 46:5; 겔 47장); ④ '생명나무'(창 2:9; 등대—출 25:31-35); 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창 2:9; 율법—시 19:8-9); ⑥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아바드...사마르, שָׁמַר ...עָבַד; 창 2:15; 성막에서 레위인의 직무—민 3:7-8); ⑦ '(동산에) 거니시는(여호와 하나님)'(미트랄레크, מִיְטְרָלֶק; 창 3:8; 성막에 거니시는 하나님—레 26:12; 삼하 7:6-7); ⑧ '(가죽)옷'(케토네트, כִּתְמוֹת; 창 3:21; 제사장 겂옷—출 28:4); ⑨ '(에덴동산) 동편에'(믹케덤, מִיְכָדֵם; 창 3:24; 성막/성전의 출입구—민 3:38; 겔 8:16); ⑩ '그룹들'(케루빔, כִּרְוָבִים; 창 3:24; 성막 지성소 속죄소와 휘장에 존재—출 25:18-22; 26:1); ⑪ '화염검'(창 3:24; 민 1:51, 53).
- 셋째, 창조와 성막 건립에는 준공 검사(창 1:31; 출 39:43상)와 축복이 뒤따른다(창 1:28; 출 39:43하).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수도가 그 국가의 상징이요, 수도함락이 곧 국가패망으로 인식되었듯이, 고대근동 역시 왕궁(신전)이 왕국의 중심부요, 특별히 그 신전파괴가 왕국멸망으로 인식된다. 고대근동에 널리 알려진 애가문학과 예루살렘(애 1-5장), 두로(겔 26:17; 27:2,32; 28:12), 애굽(겔 32:2,16)에 대한 애가는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⁶⁶⁾ 따라서, 왕궁(신전)으로서의 우주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신국) 건설인 셈이다. 이 왕국(신국)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모든 거짓 신들 위의 유일신)이시요, 주권적으로 창조-보존-심판하시는 은혜 왕국이기요, 왕궁(신전)으로서의 우주는 생명력을 가진 '군대'(후론할 창 2:1 참조)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적(신적) 임재와 영광을 찬양한다.

우주창조는 진화론자들의 발상대로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니며, 고대근동에 편만했던 창조신화들의 이스라엘 신앙공동체에 의한 각색도 결코 아니며, 모든 피조물은 망원경적 존재에서부터 현미경적 존재에 이르기

넷째, 창조와 성막 건립 후 성별되고 복된 안식일로 끝맺는다(창 2:1-3; 출 31:12-18).

다섯째, 창조 완성 후와 성막 건립 명령의 완결 후 하나님의 언약에 각각 불순종한 결과로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창 3장; 출 32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된다(창 3:15, 21-24; 출 33-34장). 출 19장과 24장의 시내산도 창조 기사와 결부하여 성막의 원형으로 이해된다(참조,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김동진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상) (서울: 세순, 1994), 296-98; 정충하 역, (하) (1995), 137-140).

66)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고대 근동에 널리 알려진 장르로서의 왕국 멸망의 애가들(lamentations)에 대하여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160-63; W. Gwaltney, "The Biblical Book of Lamentations in the Context of Near Eastern Literature" in *Scripture in Context II*, ed. W. Hallo, J. Moyer, and L. Perdu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191-211 및 P. W. Ferris, Jr., *The Communal Lament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2)를 참조하라.

까지 설계(지)-시공(의)-감리의 만족(정)에서 보여주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무한(=영원-무소부재-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신성을 시위하는”(롬 1:20) 하나님의 걸작품이다(시 9:3; 엡 2:10).

3. 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시간에 나타난 ‘생명’ 이해

a) 고대근동 배경에서의 ‘태초에’(베레쉬트, מֵרֵאשִׁית) 이해

구약에 6회 사용된 이 단어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은 여호야김(렘 26:1)과 시드기야(렘 27:1; 28:1; 49:34)의 즉위 연도 표기에 사용된 베레쉬트 맘레쿠트(מַמְלַכּוּת מֵרֵאשִׁית,⁶⁷⁾ “왕권의 시작에 있어서”)란 숙어이다. 이것은 왕이 즉위한 후 그가 첫 새해를 맞아 그의 즉위 제 1년으로 공인되기 이전까지의 미확정된 통치 기간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서 유다왕국에도 적용된다.⁶⁸⁾ 이 용법은 의미상당구인 수메르어 mu-sag(‘첫 해’) nam-lugal-la(‘왕권의’) 혹은 아카드어 *rēš šarrūti* 에서도 그렇게 인정된다.⁶⁹⁾ 만일 여호야김 시대의 새해가 봄철이었다면, 그의 베레쉬트 맘레쿠트는 주전 609년 8/9월에서 608년 3/4월 사이의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키며,⁷⁰⁾ 시드기야의 경우는 이 기간이 4년이었다(렘 28:1; 주전 597-593년).⁷¹⁾

67) 맘레쿠트(מַמְלַכּוּת : 렘 26:1), 맘레케트(מַמְלַכֶּת : 렘 27:1; 28:1), 말쿠트(מַלְכוּת : 렘 49:34)의 3 형태를 취한다.

68) Simon J. De Vries, “Chronology of the Old Testament,”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586a, 587a; John H. Sailhamer, *Genesis Unbound: A Provocative New Look at the Creation Account* (Sisters, OR: Multnomah, 1996), 38-42.

69) “šarrūtu,” *Chicago Assyrian Dictionary (CAD) Š Part II* (1992), 123, b); “rēšu,” *CAD R* (1999), 285-286, 4a)2’. 참조. *ištu SAG* (var. *re-iš*) *šarrūtiya adi 5 palēya*, “나의 통치 원년에서부터 나의 등극 5년 되는 해까지,” in AKA 83 vi 44 (Tigl. I).

70) William Holladay, *Jeremiah* v. 2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1989), 103.

71) 일본 왕의 공식 즉위가 약 1년 반에서 2년에 걸친 미확정된 세 가지 제의(*Sokui-rei*, *Senso*, *Daijo-sai*)로 구성됨을 참조하라.

호세아 9:10의 베레쉬타(בְּרֵאשִׁיטָה, “그것[=무화과]의 첫 계절에”)란 단어 역시 바로 그 앞의 케빗쿠라 비트아나(בְּכִבְרָה בְּתֵאנָה, “무화과나무에서 햇무화과처럼”)와 연어(collocation) 관계에 있어서, 파그(פָּג, 아 2:13), 빗쿠라(בְּכִוְרָה, 사 28:4; 렘 24:2; 미 7:1; 나 3:12)라 부르는 햇무화과(현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탁쉬[taqsh])를 생산하는 6월⁷²⁾의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베레쉬트는 “[하나님 왕국의] 시작에 있어서”⁷³⁾라는 완전문구의 축약형(ellipsis)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베레쉬트를 절대형으로 이해하여 창세기 1:1이 2-3절에서부터 독립된 하나의 완전한 문장임을 지지한다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해석이나, 이 단어가 느헤미야 12:44(레쉬트, לֶשֶׁט)의 경우처럼 정관사를 갖지 않은 연계형으로 보아,⁷⁴⁾ 1절은 2-3절에 종속된 상황절로 이해하는⁷⁵⁾ 진보주의 해석 모두 이 고대근동학적 관용구의 요점을 간과해온 셈이다.

우리의 해석은 신학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creatio ex nihilo)한 입

72) 사 28:4의 “여름 이전의 햇무화과”(בְּכִבְרָה בְּתֵאנָה)란 표현과 마 21:18-22 = 막 11:12-14를 참조.

73)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언약신학의 골격에서 창세기 전반을 “하나님 왕국 서론”으로 이해하는 Meredith G. Kline,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dview* (Overland Park, KS: Two Age Press, 2000) = 김구원 역, 『하나님 나라의 서막』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7)을 참조.

74) 즉 바라(בָּרָא)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베로, בְּרוֹ)으로 본문 수정을 시도한다. 혹자는 이사야 46:10, 느헤미야 12:44의 경우에서처럼 정관사 없이도 독립형으로 쓰일 수 있고, 비록 연계형일지라도 아카드어를 포함한 셈족어에서 바로 그 뒤에 얼마든지 정동사가 올 수 있으므로, 정동사 바라를 베로로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 자세한 실례를 위하여, Edward J. Young,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3), 3, 각주 7을 보라.

75) 이에 따르면, 창조의 첫 행위는 1:3에서 시작되며, 결국 1:1-2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절이 되는 셈이다. 참조, E. A. Speiser, *Genesis*, 3과 C. Westermann, *Genesis*, 1:94이하.

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창조의 첫 행위는 3절에서 시작된 첫 날의 빛이 아니라 1절의 우주창조임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미확정된 통치기간”으로서의 우주창조와 현대 과학이 논의하는 우주와 지구의 연령과도 충돌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셈이다.

고대근동의 어떤 문헌에도 이런 표현으로 우주론을 시작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언제, 얼마동안(수십억 년, 수천 년, 짧게는 수개 월 혹은 수 일)⁷⁶⁾ 우주를 창조했는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 셈이다.

b) 원시론(베레쉬트, תְּחִלָּתוֹ)과 종말론(베아하리트, תְּחִלָּתוֹ, ‘후일’)

‘시작’(레쉬트, תְּחִלָּתוֹ)이 미확정된 기간을 가리킨다면, 그 대조어인 ‘종말’(아하리트, תְּחִלָּתוֹ)도 미래의 미확정된 기간으로서의 ‘후일’을 가리킨다.⁷⁷⁾ 즉 계시의 ‘시작’(원시론, protology)은 그 계시의 ‘종말’(종말론, eschatology)을 예견하지만,⁷⁸⁾ 창조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된 세계의 종말 역시 예수님마저도 알 수 없다(마 24:36). 하나님의 우주 역사에 두신 목적(창 1:31; 2:18; 시 104:31; 사 43:18; 요 1:13; 롬

76) Sailhamer, *Genesis Unbound*, 28.

77) 예를 들면, 민 24:20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광야여정 어느 기간에 열방 중에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출 17:8-13; 신 25:17) 훗날 반드시 멸절할 것임을 예언한다(참조, 신 25:18; 대상 4:43). 여호와와 그의 눈이 세초에서 세말까지 가나안 땅 위에 있고(신 11:12),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 8:7; 비교, 42:12; 전 7:8; 사 46:10)는 모두 미확정된 기간의 시간을 가리킨다.

참조, 비슷한 표현 문구로서, ‘말일에’(아하리트 하야밈, תְּחִלָּתוֹ אַחֲרֵי מֵימָיו : 창 49:1, 민 24:14, 신 4:30, 신 31:29, 사 2:2, 렘 17:11, 렘 23:20, 렘 30:24, 렘 48:47, 렘 49:39, 겔 38:8, 겔 38:16, 단 10:14, 호 3:5, 암 4:2, 암 8:10, 미 4:1).

78) 이 주제를 위하여 Warren A. Gage, *The Gospel of Genesis: Studies in Protology and Eschatology* (Winona Lake: Eisenbrauns, 1984) = 손석태 역, 『창세기의 복음』 (서울: 솔로몬, 1999)을 보라.

11:36; 엡 1:5,11; 계 4:11)의 통일성을 인식함은 가능하지만,⁷⁹⁾ 구원역사 속에 그 목적의 부분적 성취의 과정에 대한 시간, 방법, 장소 등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측불허”이다(사 55:8-9; 64:4; 고전 2:9; 롬 9:15-18):

사 46:9-10,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זָכוּרוּ רֵאשִׁנוֹת מֵעוֹלָם).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מֵנִיּוֹד מֵרֵאשִׁית אַחֲרַיִת),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לֹא־נִעְשׂוּ) 보이고”

창 49:1,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אַתְּכֶם בְּאַחֲרֵית הַיָּמִים) (אֲשֶׁר־יִקְרָא): 비교, 민 24:14; 신 31:28⁸⁰⁾

미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모짜오타브, מוֹצְאָתָיו)은 ‘상고에’(미메이 올람, מֵימֵי עוֹלָם), ‘태초에’(미케렘, מֵקֶדֶם)니라”: 비교, 예수님의 탄생으로 종말이 시작됨—마 2:6; 히 1:1-2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ἐγὼ τὸ ἄλφα καὶ τὸ ὦ ὁ πρῶτος καὶ ὁ ὅσχατος ἡ ἀρχὴ καὶ τὸ τέλος)

따라서, 과거 사건은 미래 사건의 예시적 기대요, 미래 사건은 과거 사건의 회고적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초두부터 소위 학자들이 “전

79) 예: 기상을 예보함과 니느웨의 종말론적 교훈(마 16:1-4), ‘노아의 때’와 같은 종말(창 6-9 장, 마 24:3, 뱀전 3:6-7, 바나바 6:13, “보라 내가 시작과 같이 끝을 내리라”), 및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질 것”을 예견하는 표현인 “땅이 있을 동안에는”(אֲדָמָה וְיָרֵחַ וְיָמַי כִּי, 창 8:22; 비교, 뱀후 3:10-13).

80) 세일해머, 「모세오경 상」, 87-91.

략적(strategic)인 서술적 모형론(Narrative Typology)”이라 부르는⁸¹⁾ 본문들의 종말론적 이해가 요청된다.

c) 삼위일체 '하나님'(엘로힘, אֱלֹהִים)

(1) 창조주 하나님

히브리어 동사는 주어와 시제가 한 단어에 표현되므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바로 동사 바로 뒤에 놓아 창조의 주체인 '그'가 바로 '하나님' 이심을 선포한다. 창세기와 함께 구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러티브, 즉 이야기체의 본문에서 그 주인공은 단연 하나님이다(예. 수 10:10의 원문;⁸²⁾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는 여호수아 24:2-13에서 '나'을 주어로 하는 모든 동사들).

자존(출 3:14)과 자족(행 17:24-25)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연성은 전혀 없다. 다만 그분이 기뻐하시고(엡 1:5) 원하시는(엡 1:11) 뜻대로(계 4:11) 창조하셨다. 따라서 피조물 자체에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가 결코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란 목적이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존재한다(시 19:1; 29:9; 104:31,33).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창조/중생), 주로 말미암고(보존/성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심판/영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이란 영광송(doxology) 역시 창조-타락과 구속-완성의 역사 주체인 신 은혜의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출 33:19; 롬 9:18) 주권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81) 전게서, 91-104. Gage는 시가의 병행법(Parallelism)과 마찬가지로 예언적 내러티브에서의 “역사적 병행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본 논문 각주 92).

82)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면전에서 혼란케 하고, [여호수아가] 를 한글개역에는 이 자리에 삽입함]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쳐죽이고, 벤 호론의 오르막 길목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쳐죽이니라.”

고백적(anacoluthon; 파격적 문장—롬 1:25; 9:5; 11:36; 16:27; 갈 1:4; 빌 4:20; 엡 3:14-15; 살전 1:3; 3:11,13; 딤후 4:18; 벧전 4:11) 찬양이다.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 of God)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강조점이다. 진보주의 신학사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항목이 없으나, 개혁주의 신학 사전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전 11:4-6),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마 19:26),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롬 4:17) ‘생명의 하나님’⁸³⁾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진다.

(2) 엘로힘(אלהים)의 ‘삼위일체론적’ 의미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은 엘로아흐(אלה)란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지만(시 97:7), 성경의 하나님일 경우에는 항상 단수 동사를 사용한다. 이것은 신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예: 마3:16-17; 28:19)의 삼위(복수) 일체(단수)를 시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기 1:1-3에서 “하나님(성부)–가라사대(성자, 비교: 시 33:6,9; 요 1:1, ‘말씀)–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표현된다.

83) 참조, 시 42:8, “나의 생명의 하나님”; 신 30:20,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長壽)시니”; 따라서 인간의 생명연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창 5장의 10대 족보, 특히 에녹[21-24절]; 25:7; 47:28; 신 32:39; 왕하 20:6; 시 39:4; 90:5,9-10).

d) 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시간'에 나타난 '생명' 이해⁸⁴⁾(1) 시간과 영원의 이해⁸⁵⁾

김은수 박사는 현대신학의 뜨거운 감자인 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시간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한한 질적인 차이성"(an infinitive qualitative difference)을 드러내는 "‘무시간성’으로서의 영원 이해"(timeless view of eternity)와 "실제적 혹은 적극적인 관계성"(a real or positive relationship)에 근거한 "‘시간적 영속성’(시간적 무한성, everlasting view of eternity)으로서의 영원 이해"라는 상반된 논쟁을 극복하는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으로서, 개혁주의 성경신학적 해석학을 따라, "시간을 '생명/존재의 형식'(the form of life/existence)으로 이해할 것을 제한한다.

또한 이와 같이 시간을 생명의 존재형식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방식인 "자존적인 영원한 생명"과 우리 자신과 피조물들의 존재방식인 "피조된 유한한 생명" 사이에 하나의 유비적인 관계, 즉 "생명의 유비"(analogia vitae, analogy of life)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사이에는 일종의 '유비적인 관계'(analogical relationship)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간을 '생명의 형식' 혹은 '생명의 존재방식'으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자존적이며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조건적인 유한한 생명 사이에서, 하

84)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김은수 박사의 학위논문(2006)의 개정판인 Eunsoo Kim, *Time, Eternity, and the Trinity: A Trinitarian Analogical Understanding of Time and Eternity* (Eugene, OR: Pickwick, 2010)와 최근의 그의 논고들의 도움을 받았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 시간과 영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주의 신학』 제23권 (2008.4.1): 153-195; "시간과 영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 『조직신학연구』 제10호 (2008.5.22): 197-250;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I): 존재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이해", 『한국개혁주의 신학』 제24권 (2008.10.1): 120-163;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II): 생명의 소통을 중심으로", (2010, 근간).

85) 김은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 시간과 영원의 이해를 중심으로"의 중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나님은 창조된 시간에 의하여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동시에, 그는 또한 참으로 시간 속에서 행위하시며 창조된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있는 그의 피조물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신다는 하나의 유비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것은 '생명의 유비'(analogia vitae)라고 제안한다.

(2) 시간과 “관계-속에-있는-생명으로서의-존재”의 이해⁸⁶⁾

참된 생명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의 단일성에 대한 존재 형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시간은 '참된 시간'이며 '완전한 시간'이라면, 타락 이전의 인간(창 1-2장)은 하나님의 형상, 곧 '관계의 유비'(analogia relationis)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관계-속에-있는-생명으로서의-존재”(the being-as-life-in-relation))인 인간의 관계적 상황⁸⁷⁾은 '상대적으로'(relatively) 완전한 것이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의 '깨어진 시간'(the broken time), 곧 '죽음의 시간'(the mortal time)은 생명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의 총체적 파괴를 반영하며(창 3장-계 20장; 특별히 계 22:11 참조),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관계를 회복하여, (1) 하나님과의 관계(영적 새 생명: 하나님의 새 백성, 참 이스라엘), (2) 사람과의 관계(사회적 새 생명: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3) 자연 환경과의 관계(생물-물리적 새 생명: 육체의 부활과 만물을 새롭게 하심)를 구속사(타락 이전, 타락 이후의 파괴, 구속 이후의 회복)의 틀에서 규명한다.

86) 김은수,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I): 존재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이해”의 중심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87) 김은수는 이 관계를 삼중 구조로 보아, (1)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영적 생명), (2)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사회적 생명), (3)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생물-물리적 생명)를 구속사(타락 이전, 타락 이후의 파괴, 구속 이후의 회복)의 틀에서 규명한다.

e) 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공간'에 나타난 '생명' 이해⁸⁸⁾

신적 초월성을 배제하지 않는 신적 공간성(spatiality) 개념은 세상 속에 내재 내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공간의 세상과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심을 의미한다. 신적 공간성은 삼위일체 창조주의 임재를 위해 요구된다. 더니스(W. A. Dymess)의 3범주를 따르면, "관계성, 매체, 구현(embodiment)"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간성이 이해된다. 즉, 삼위간의 관계성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공간성을 요구하며, 우주는 닫힌 것이 아니라 열려 있기에, 이 세상사(世上事)는 인과 관계적으로 미 확정적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신의 창조적 임재의 매체로 사용하여 활동하실 '여지'(gaps)가 있음이 최근의 생물학, 양자론, 카오스론 등의 분야의 발전에서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창조 세계,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신구약 교회, 주 예수님의 만찬 등은 세상이란 공간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준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을 삼위일체론에 두는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바빙크의 노선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론적 공간성에 대한 이해는 모든 피조물의 공간성 논의에 전제가 되는 것이다. 본체론적으로 각각 고유의 구별되는 존재 사실을 가지는 하나님의 3위격의 속성은 각각 성부의 '낳으심'(요 5:26), 성자의 '나심', 성령의 '나오심'이란

88) 이 주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위해, 유태화, "Herman Bavinck의 삼위일체론", 『기독신학저널』 5 (2003): 71-98;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tr. W. Hendricksen; Grand Rapids: Eerdmans, 1951) = 이승구 역, 『개혁주의 신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제6장, '거룩한 삼위일체' (371-486), 제7장, '하나님의 경륜' (487-583) 중에 특히 487-490을 보라. 이 주제에 대하여 박찬호 박사의 학위 논문(Chan Ho Park, *Transcendence and Spatiality of the Triune Creator* [Ph. D. dis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3]) 및 그의 논고 "Space" in *Global Dictionary of Theology* William A. Dymess ed. (Downers Grove, IL: IVP, 2008), 845-847에서 큰 통찰을 얻었다. 특히 신적 공간성을 논한 학위논문 제5장(145-91)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논한 제6장(192-299) 중 특별히 197-98을 보라.

영원한 삼위일체적 '내재적 관계성'(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혹은 intra-trinitarian relationality)으로 이해된다. 바빙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 본질 밖으로 나아가는 외적 사역(창조, 섭리, 구속) 이전의 사역이 아 주 신적 본질 내에서 일어나며, 그 안에 한정되는 각 위 상호간의 사역(남오심, 나심, 나오심)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수립된 관계를 수단으로 외적으로 실현되기까지의 내적 사역(작정들⁸⁹⁾)으로 이해한다. 삼위의 각 위격의 '동일한 영원성, 동일한 전능성, 동일한 전지성'의 다양성을 공유 하심은 각 위격 사이에 '함께'하시는 영원한 교제의 관계로서 일체의 단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⁹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성 주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의 사후에 대한 대표치로서 회개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확인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8)는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님 안에서"(고후 1:22; 엡 1:13-14) 살다가,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

89) 예: 생명책(출 32:32; 시 69:29; 87:6; 139:16; 사 4:3; 렘 17:13; 겔 13:9; 단 12:1)에 기록됨. 작정에 관한 신약 용어들로서, 엡 1:4(에크로게 ψ), 5, 9(유도키아), 11(블레, 셀레마,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스모스), 롬 8:29(프로그노시스)를 보라.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 내적 사역을 "창조 이전의 언약적 약정"(a precreation covenantal bond)으로 이해하여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속의 언약협의", "영원한 언약협의", "평화의 협의" 등으로 불려온 사실에 대하여,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rdmans, 1952), 2: 354 이하 및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2), 265 이하를 보라.

90) 예를 들면, 성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1:2),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며"(요 1:18), "영원한 사랑과 자기교통의 동역자" 이시다(요 5:26; 17:24). 성령은 성부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며(고전 2:10; 롬 8:27), "지혜자요, 장인(匠人)으로 하나님 곁에 계셨고"(잠 8:30), "하늘을 단장하시며"(욥 26:13), "생물계를 창조하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시 104:30).

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계 21:3)라는 구속사와 언약의 완성으로 끝맺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생명’ 이해

a) 고대근동의 우주론 배경에서 본 하나님의 우주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들과 그 땅”(하사마임 베하아레쯔, אֲשֶׁר בָּרָא אֱלֹהִים)은 이분법적 유의어(merism: hendiadys)로서, 수메르어의 안-키(an-ki), 아카드어의 샴우-우에르제투(*šamû u ersetu*) 등의 상당 어구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근동의 ‘우주’를 가리키는 숙어이다(창 2:1,4; 시 121:1; 램 51:48; 마 5:18).

성경에서 우주를 표현하는 다양한 삼분법적 문구는 이 사실을 더욱 확증 한다: “하늘들과 땅과”⁹¹⁾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출 20:11; 시 146:6; 행 4:24; 14:15);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느 9:6);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91) 여기서 ‘하늘’이란 흠에서 지음 받은 인간의 지배력(창 1:28-30)이 미칠 수 없는 피조물의 일부를 의미한다. 태양, 달, 별들이 창 1:28-30의 목록에 빠진 것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 ‘하늘’은 공간적 ‘위’보다는 ‘비 근접성’의 의미가 강조된다. 영어 *cosmos*(우주)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키므로 ‘세상’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하늘’의 새(창 1:20, 28, 30)는 땅으로도 내려와 인간과 접촉될 수 있기에 ‘공중’의 새로 이해된다. “새들이 살게 되어 있는 영역은 땅이지 공중이 아니라고 말해 진다”라는 Edward J. Young의 제언에 대하여 그의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64), 72를 보라.

‘하늘’이나 ‘군대’(צָבָא, אֲשֶׁר)란 용어가 천사와 별들에 함께 사용되므로(느 9:6; 시 50:4; 89:5-7, 11; 148:1-2; 사 24:21; 막 13:27; 빌 2:9-11; 계 5:3) 하늘과 우주를 구별함에 모호성이 있다. 하늘에 거하는 천사(창 3:24; 비교, 시 148:2-4; 마 18:10)의 창조는 창 1:1, 7-8, 14-18의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최소한 창 1:1-31의 어떤 시간이며, 마귀와 그 추종 천사들의 타락(계 12:9 참조) 역시 창 3:1 이전임은 확실하다. 우리는 여기서 창 1:2에서 마귀의 타락을 추정하여 1:3이 재창조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갭(gap) 이론을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계 10:6);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학 2:6);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것의 충만한 것”(시 96:11);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들 가운데 기는 모든 것”(시 69:35);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땅 아래 물속”(출 20:4; 신 5:8; 빌 2:10; 계 5:3,13);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시 135:6; 계 14:7); “그 모든 것”(시 103:19; 119:91; 전 11:5; 렘 10:16 = 51:19; 요 1:3; 행 17:24; 골 1:16; 히 11:3; 계 4:11).

b) 정령적 다신론인 고대근동의 문화-종교를 경책(警責)함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수메르의 신관(神觀)을 예로 들면, ‘하늘’이란 뜻의 으뜸 신 안(An)과 ‘땅’이란 뜻의 그의 아내 키(Ki) (혹은 우라쉬 [Uraš])로부터 여러 신들이 출생하고, 따라서 우주는 “안(An)의 하늘, 중간 하늘들, 창공, 지면, 압주(Abzu, 지하수, 지하계)의 6층과 각 영역을 지배하는 자연신들로 구성되므로,⁹²⁾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 나타난 피조물들, 즉 하늘과 그에 속한 해, 달, 별, 궁창, 새 등이나, 땅과 그에 속한 풀, 채소, 과목, 육축, 짐승, 땅에 기는 것이나, 바다와 그에 속한 깊은, 물고기 등이 신의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지요신 피조물은 한결같이 절대로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독특한

수용할 수 없다. 창 1장에 천사의 창조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피조물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는 것이지 모든 피조물의 구체적인 종류를 목록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나, 인간의 일상생활에 볼 수 있는 피조물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본문들을 근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곤란한 다른 항성에도 인격적 피조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James Reid에 대하여 그의 책 *God, the Atom, and the Universe* (Grand Rapids: Zondervan, 1968), 210 이하를 참조.

92)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Horowitz, Wayne, *Mesopotamian Cosmic Geography* (Mesopotamian Civilizations 8: Winona Lake: Eisenbrauns, 1998)를 보라.

위치와 사명자임을 명시하여(시 8:4-6; 롬 1:23, 25),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우상적 문화와 종교의 허구성을 경책하며, 동시에 참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선교적 소명과 사명을 촉구한다.

역사적으로, 주전 1400년 경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애굽의 “아텐 [Aten]의 찬양시”(주전 1350년 경)에 대한 선교변증학적인 요소를 보여준다.⁹³⁾ 창조기사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기초를 제공한다. “왜 다른 신은 안 되는가?”(출 20:3);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창 1:1). “왜 살인할 수 없는가?”(출 20:13);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창 1:26-28).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출 20:8-11);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이다(창 2:2-3).⁹⁴⁾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고(창 1:2), 동일하신 그 성령님께서 홍해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다(출 15:8-10). 우주창조에 보여 주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창조와 이를 위한 출애굽에 이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이 창조기사는 인류는

93) 아텐(혹은 아톤[Aton])은 태양신으로서 태양 모양의 원반에 햇살모양의 갈고리 손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 형상이다. 그를 숭배하는 일은 아켄아텐(Akhenaten, ‘아텐의 영광’)이라 개명한 아멘호텝 4세(Amenhotep IV; 주전 1372-1355)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아텐 숭배의 기원은 불확실하며 헬리오폴리스(Heliopolis) 근처의 지방 태양신으로 출발했다. 따라서 그 당시까지 태양신으로 군림하던 아멘-라(Amen-Ra)의 제사장들은 심한 반발을 일으키므로 아멘호텝은 그의 수도를 테베(Thebes)에서 새롭게 건축한 Tell el-Amarna로 옮긴다. 그는 15년 정도의 통치 후에 그의 아내 Nefertiti와 함께 갑작스런 임종을 맞으며, 아마도 Amen-Ra 제사장들에게 피살된 듯하다. 그가 남긴 아텐 찬양시의 시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떠오름은 하늘 지평선에 아름답고,

오 아텐 당신, 태고적부터 존재하셨고,

당신이 동쪽 지평선에 떠오를 때면 모든 땅을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나이다.

당신은 보기에 아름답고, 위대하며, 수정같고, 땅위에 높이 계십니다.

당신의 빛살은 땅, 당신이 지으신 땅을 품으며,

당신은 라(Ra)와 같아서 (당신 자신을) 각 땅에 보내어,

그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묶습니다.

당신은 멀리 계시나 당신의 빛살은 온 땅위에 있습니다.

아담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애굽을 포함하여 세계 열방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는 기초적인 기록이다(출 19:4-6).

c)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고대근동의 정령적 다신론의 선교변증학적 고찰

	Sumer	Akkad	Egypt (Memphite)	Hittite	Canaan (Ugarit)
1:1 하늘	An	Anu	Nat		El
땅	Ki/Enki	Ea	Šu		Kotar
1:2 깊음		Tiamat			
영(=마람)	Enlil	Ellil			
번개	Ninurta		Seth	Tešub	Ba'al Haddu (왕상16:31: 8:18-46)
폭풍	Iškur	Adad(시리아)/Marduk (렘 50:2)/Aššur/Bel(사46:1: 렘51:44)			
물	Enki	Ea			
1:10 바다	(Abzu)	Apsu			Yamm
1:11 풀	Dumuzi (겔 8:14)	Tammuz	Osiris		
1:16 해	Utu	Šamaš	Ra, Horus	Arinna	'Anat
달	Nanna/Zuen ⁹⁵⁾	Sîn	Thoth		
1:26 바다고기	Nanše	Tiamat	Nun		
1:27공중의 새	Anzu	Anzu	Horus		[참조: 창1:2 "은행" (독수리)]

94) B. K. Waltke, "The Literary Genre of Genesis, Chapter One," *Cruix* 27 (1991) 3.

95) 종교적으로 수메르 남쪽 우르(Ur)와 북쪽 하란(Harran)은 구 바빌론 시대부터 수메르의 일곱 주요 신의 하나인 월신 Nanna/Suen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Mari의 Zimrilim왕(주전 1730-1700년경 통치) 때 이미 언급되고 있으며, 그 신전 이름이 수메르어 é-hùl-hùl=아카드어 *šubat hidāti*, "환희의 집"이었음이 비문을 통해 알려졌다. 월신 Suen은 만월일 경우 Nanna로, 신월일 경우 Suen으로 불리웠다.

1:29	채소,	Ašnan	Dagan			Dagon
						(삿16:23; 곡식, 삼상5:2-7)
1:28	생육	Ninhursag/ Ninmah/Nintu	Aruru	Hathor	Nephtys	Ašerah
	번식	Inanna	Ištar	Isis	Hannahanna	'Aštarte(Astoreth)
						(삿2:13; 10:6; 삼상12:10; 왕상11:5) 하늘황후 (렘7:18; 44:17-25)
	비교: 무덤	Ereškigal	Nergal	Osiris		Mot
	갈대-기록	Nidaba	Nabu	Thoth		Molech (Malkam Milcom)
			(사46:1)			(슌1:5; 렘49: 왕상11:5,7,33)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창11:28, 31, 15:17, 느 9:7)를 Woolley경이 발굴했던(1922-34) 남쪽 Ur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서, Ugarit 문서에 나타났던 Hittite 도시 Ur와 관련하여 하란의 (북)동쪽에 이 "갈대아" 우르(사실 남쪽 우르가 갈대아 우르로 불려진 어떤 문헌도 없다)가 있다고 Gordon이 1958년 처음 제안한 이래, 이제 최근의 Ebla 토판에서 "하란에 있는 우르"를 언급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월신 난나/주엔의 열광적 우상 숭배 가문이었다(창 31:30; 신 26:5; 수 24:2; 사 51:1-2; 히 11:8).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의 족보(창 11:27-32) 속에 월신 숭배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니, 테라(terah)는 어원적으로 '달'(yārēah)과 관련될 수 있고, 사래('여왕'이란 뜻)의 수메르 상당어는 닌갈[nin-gal]인 바, 바로 난나/주엔의 아내 이름이요, 밀가[milkā, "여왕"]는 난나/주엔의 딸 말카투[malkatu]와 동등어이며, 라반[lebānā, "흰"]은 보름달의 시어(詩語)인 레바나[lebānā]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주신인 난나/주엔 월신 연구에 대한 결정판인 Mark Hall, *A Study of the Sumerian Moon-god, Nanna/Suen*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은 아래와 같은 결론적인 요약은 제공한다(592-97쪽).

난나/주엔은 남신(男神)으로서 두가지 특징적인 면을 지닌다: ①천상으로는, 밤하늘의 유일한 빛 공급원으로서 월력 시간표의 중심이요, 태음 월말에 달이 하늘에서 사라진 후 지하계에서 운명(수메르어 *nam-tar*) 결정신이며, ②목축으로는 송아지로 구현되어 가족의 번식과 그 식품(우유, 치즈 등)을 공급하는 신에서 더 나아가 곡식, 채소, 야생(강, 공중, 시골), 인간 번식의 신이다. 이 '번식'의 표상을 갖게 된 이유는 달이 주기적으로 초승달, 보름달, 그믐달을 반복하는 모습이 대(代)가 끊어지지 않고 성장(生長)하는 번식의 능력으로 이해되었고, 이 능력을 모든 생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수메르 최고 부부신인 엔릴(Enlil: '바람 군주'란 뜻)과 닌릴(Ninlil: '바람 여왕')의 아들로서 "소를 치는 자"로 묘사되는 것도 가축을 키우며 그 생산품으로 부모를 섬기는 효자를 연상하기 때문이며, 새해마다 니푸르(Nippur: 수메르의 예루살렘격으로 에스겔이 포로 생활한 델아빌[겔3:15]이 그 근교이다)에 거주하는 엔릴에게 초실제(初實祭)를 드리기 위해 여행했다. "신들의 여행"(divine journey)에 대하여 알려진 7개의 주요 수메르 문헌들에 대해서는 A. J. Ferrara, *Nanna's Journey to Nippur* (Studia Pohl SM 2: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3)과 A.-H. A. al-Fouadi, *Enki's Journey to Nippur, The Journeys of the Gods*

5. 우주창조에 나타난 성령님의 '생명' 사역(창 1:2)

a) "그런데 땅은 모양이 없고 비었다"

(베하아레쯔 하예타 토후 바보후, $\text{וְהָאָרֶץ רֵיקָה וְחֹסֶר עֹרֶה}$)

구약에 20회 사용되는 토후(וְהָאָרֶץ , 한글개역의 '혼돈'이란 번역은 혼돈스러운 것이다)란 명사의 기본적 뜻은 "생산력이 없는 황무지"(신 32:10)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땅의 창조무효화(uncreation), 즉 창조(건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감이나(사 24:10; 45:18; 비교: 창 6-8장의 노아 홍수), 비존재의 황폐한 상태(사 40:17,23; 41:29; 49:4), 즉 생명이 없어 모양이 없는(생명은 모양을 지닌다) 상태를 보여준다.

구약에 3회 사용된 보후(וְהָאָרֶץ , '공허')란 명사의 기본적인 뜻은 천막이나 집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없는 텅 빈"으로서, 항상 토후와 두운법(alliteration, 즉, '오후'란 발음) 쌍으로 사용되며(사 34:11; 렘 4:23), 역시 창조무효화의 의미를 가진다(렘 4:23-26). 따라서 6일 창조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3인조(triads)의 점진적 창조로 이해할 수 있다.⁹⁶⁾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9) 및 H. Sauren, "Besuchsfahrten der Götter in Sumer," *Orientalia* NS 38 (1969), 214-36을 참조하라.

그는 하란과 우르의 주신으로서 그 도시의 "아버지(a-a), 군주(lugal, en), 영웅적 수호자(ursag), 왕자(nun)로 불려졌고, 매일 조반(kin-nim)과 저녁식사(kin-sig)외에 달의 모양이 바뀌는 주요 시기마다 매월 에쉬에쉬(eš-ēš) 절기 때에 특별한 헌물을 드렸다. 특별히 아카드 제국의 시조인 사르곤(Sargon, 주전 2371-2316)왕의 딸 엔헤두안나(Enheduanna, 주전 2334-2279년; 비교: 아브라함[주전 2166-1991년])가 그때까지 알려진 신전 찬양시(temple hymns) 42개를 집대성하여 현세에 남겼고, 우르의 난나 월신의 대 여제사장(en)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이난나(Inanna) 여신에게 남겼다. Å. Sjöberg and E. Bergmann, *The Collection of the Sumerian Temple Hymns* (Texts from Cuneiform Sources 3, New York: J. J. Augustin Publisher, 1969)를 참조하라.

96) B. K. Waltke, "The Creation Account in Genesis 1:1-3, Part 5: The Theology of Genesis 1," *BibSac* 133 (1976) 29; 동일저자의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57-58.

모양(근원: 토후 해결)		채움(활용: 보후 해결)	
날	'정적'	날	'동적'
1	빛(1:3-5)	4	발광체(1:14-19)
2	궁창	5	거주지(1:20-23)
	하늘		새
	바다		물고기
3	육지(1:9-10)	6	육지동물(1:24-25)
	초목(1:11-13)		인간(1:26-31)

첫 3인조는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 3가지 정적 영역을 나누며, 둘째 3인조는 생명의 거주지와 안식처가 되는 영역으로서 해, 달, 생물의 동적 형태로 채워진다. 둘째 3인조는 그 상응하는 영역을 지배하여 해와 달은 흑암을(시 136:7-9),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땅을 각각 지배한다(그렇다면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새와 물고기도 각각 바다와 하늘을 지배한다고 상정할 수 있다).

각 3인조는 하늘에서 땅으로 발전하며, 땅이 무엇을 내는 것으로 끝맺는다. 첫 3인조는 땅이 초목을 내며 둘째 3인조는 땅이 동물을 낸다. 각 3인조 안에 창조행위의 수는 단 하나에서(날 1과 4) 두 국면을 가진 하나를 통해(날 2와 5) 두 구별된 창조행위로(날 3과 6) 증가 된다.

창조기사에 생명력 있는 활동 역시 상승된다. 첫 3인조에서는 빛에서 어둠으로, 궁창과 바다에서 자라는 초목으로의 단순한 동작이 있다면, 둘째 3인조는 동역학적(kinetic) 에너지의 분출이 있다. 해와 달은 하늘을 가로 지르며(시 19:5-6), 새와 물고기는 공중과 바다에서 떼 지으며, 육지동물은 땅을 가로질러 배회한다. 둘째 3인조의 활동 유형은 점진적으로서, 발광체는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된 유형을 따르며, 동물은 이주와 거주

본능적 유형에 예속된 제한된 수준의 자유를 가지고 여행하며, 인간은 단지 땅 지체에 제한을 받지만 최대의 자유를 누린다.

창조기사는 한 주간 구조로 통일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확증한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2:3은 아래와 같은 문예-신학적 구조도 발견된다.⁹⁷⁾

봉투구조(inclusio): 1:1-2 과 2:1-3

6일간 창조에 8장면 (1+1+2 유형)

* 첫째 (가라사대 : 빛)	넷째 (가라사대 : 빛들)
* 둘째 (가라사대 : 물들, 하늘)	다섯째 (가라사대 : 고기, 새들)
* 셋째 (가라사대 : 마른땅)	여섯째 (가라사대 : 짐승)
(가라사대 : 채소)	(가라사대 : 인간)

b)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베호세흐 알-페네 테흠, מַיִם עַל-פְּנֵי תְהוֹמֹת)

구약에 80회 사용된 ‘어둠’ (호세크, תְהוֹמֹת)이란 명사는 토후와 동의어로 사용되며(욥 12:24-25; 사 45:18-19; 렘4 :23), 창조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창조된 어둠(1:4-5, 18)과는 구별된 비 존재적 흑암을 가리킨다.

구약에 36회 사용된 ‘깊음’ (테흠, מַיִם)이란 명사의 기본적인 뜻은 “대양, 지하수”(창 7:11; 출 15:5, 8)로서, 우주의 삼분법적 표현인 하늘들-땅-바다(출 20:11; 시 146:6)의 ‘바다’의 위치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97) 자세한 논의는 Mark D. Futato, “Because It Had Rained: A Study of Gen. 2:5-7 with Implications for Gen. 2:4-25 and Gen. 1:1-2: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0:1 (spring 1998): 1-22; Jack Collins, “Discourse Analy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Gen. 2:4-7,”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1:2 (fall 1999): 269-76을 보라.

(시 135:6의 “깊음들” 참조). 본문에서 “무형과 공허의 땅”과 “깊음 위의 어두움”이 병행 위치에 있으므로 깊음은 땅에 종속되며(hyponymic: 시 148:7; 잠 3:19-20), 비 존재적 깊음의 ‘물들’이 땅을 덮고 있으며(1:2하, 6-8), 셋째 날에 창조된 ‘바다들’(1:10)과는 구별되는 창조 이전의 비 존재적 ‘깊음’이다.

위에서 살핀 대로 비 존재적 땅의 무 형태적이고 비거주적인 상황의 소개는 소위 “재창조설”이나 “전 창조 혼돈설”이 잘못된 이론임을 지적한다. “땅이 혼돈하고”라는 번역으로 말미암아 고대근동의 창조신화로서 가나안 신들인 바알-얌(Baal-Yamm), 바빌론 신들인 마르둑-티아마트(Marduk-Tiamat) 사이의 ‘혼돈과의 투쟁’(Chaoskampf)을 배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는 잘못도 지적할 수 있다.

창조가 “잘라서 만든 구체적 모양”일진대, ‘흑암’에 대조된 빛/흑암, 즉 낮/밤(날 1), “깊음/물들”에 대조된 궁창 위/아래 물(날 2), 물로 덮은 무형과 공허의 땅에 대조된 땅/바다(날 3)와 특히 “풀, 씨가진 채소와 과목”을 생산하는 땅(11절)은 ‘무형’(토후)에 대한 해답이다. 첫 삼일의 재료로서 다음 삼일의 내용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이 생물(육축, 기는 것, 짐승)”을 내고(24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므로(1:26; 2:7) 비거주적 ‘공허’(보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본문을 대하는 어떤 시대의 독자들이라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자리매김’(생명의 형식)과 ‘기능’(생명의 내용)은 성령님의 창조사역에 의존함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그래서 생명과 형체가 없던 죄인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요 3:3; 딤후 2:5),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규모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다.

c)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베루아흐 엘로힘, וְרוּחַ אֱלֹהִים)

이 옛새 우주창조의 실제적 수행자는 누구인가? 창세기 1:2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밝힌다. 여기 '영'(루아흐, רוּחַ)이란 단어는 구약에 389회 나오는 바, 자연의 바람(115회); 인간의 호흡, 감정, 기질, 영(141회); 초자연적 영(29회);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104회)을 가리킨다.

성령님의 대표적인 구약 명칭은⁹⁸⁾ '영'(11회, 루아흐), '그 영'(5회, 하 루아흐, רוּחַ), '그의 영'(4회, רוּחוֹ , 루호), '나의 영'(14회, 루히, רוּחִי), '여호와와의 영'(26회; 루아흐 아도나이, רוּחַ יְהוָה), '하나님의 영'(12회; 루아흐 엘로힘, רוּחַ אֱלֹהִים) '거룩의 영'(3회, 루아흐 하코데쉬, רוּחַ קֹדֶשׁ , 시 51:11; 사 63:10,11)⁹⁹⁾이다.

신약의 의미 상당구인 '영'(34회, 프뉴마, πνεῦμα), '그 영'(77회, 토 프뉴마, τὸ πνεῦμα), '그의 영'(3회, 아우투 프뉴마, αὐτοῦ πνεῦμα), '나의 영'(3회, 토 프뉴마 무, τὸ πνεῦμα μου), '하나님의 영'(14회, 토 프뉴마 투 쎄우, $\text{τὸ πνεῦμα τοῦ θεοῦ}$), '주(= 구약의 '여호와')의 영'(4회, 토 프뉴마 쿠리우, τὸ πνεῦμα κυρίου), '그리스도의 영'(2회, 토 프뉴마 크리스투, τὸ πνεῦμα Χριστοῦ), '예수님의 영'(행 16:7, 토 프뉴마 이에수, τὸ πνεῦμα Ἰησοῦ),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 토 프뉴마 이에수 크리스투, $\text{τὸ πνεῦμα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의 아들의 영'(갈 4:6, 토 프뉴마 투 휘우 아

98) Ray Pritchard, *Names of the Holy Spirit* (Chicago: Moody Press, 1995)이 논하는 87개의 명칭과 상징: Towns, Elmer and Ron Durham, ed, *The Names of the Holy Spirit* (Ventura, CA: Gospel Light Publications, 1994) = 홍원팔 역, 「성령의 명칭들」(서울: 알뜰기획, 1995)이 논하는 100개 이상의 명칭과 상징을 참조하라.

99) '거룩의 영'(사 63:10,11)이 곧 '여호와와의 영'(사 63:14)이요, 신약의 '성령'([토] 프뉴마 [토] 하기온, $\text{τὸ πνεῦμα [τὸ] ἁγίου}$; 혹은 토 하기온 프뉴마,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과 의미 동등어이지만, '거룩의 영'(프뉴마 하기오수네스, πνεῦμα ἁγιασμένης ; 롬 1:4)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우투, τὸ πνεῦμα τοῦ υἱοῦ αὐτοῦ)과 동일한 신격임이 증거 되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제 3위되시는 '성령님'(87회, 프뉴마 하기온[47회, πνεῦμα ἁγίου]; 토 프뉴마 토 하기온[28회,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토 하기온 프뉴마, 12회, τὸ ἅγιον πνεῦμα)이다.

유대인과 진보주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바람'("a wind from God"; NRSV, NJB, NJPS)이나 '강한 바람'('mighty wind'; NAB)으로 번역함은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글 개역성경에 "하나님/여호와의 영"을 모두 "하나님/여호와의 신"으로 번역한 것도(예외: 대하 18:23), '신'은 한글 개역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의 번역이므로(예: 삼상 5:7-6:5에 6회 사용된 "이스라엘 신") 오해와 혼란의 여지가 있다.

d) "수면에 선회하고 계셨다"

(메라헤페트 알-페네 하마임, מֵרַחֵפֶט עַל-פְּנֵי הַמַּיִם)

여기 '수면'(알-페네, עַל-פְּנֵי)은 곧 땅을 덮고 있는 물로서의 '깊은 물'의 표면을 가리킨다. "선회하고 계셨다"(3회; 메라헤페트, מֵרַחֵפֶט)는 강세형(Pi'el) 현재분사로서, 그 동작의 주체는 독수리의 능력 있는 활동의 계속성을 묘사한다. 신명기 32:11에는 새끼위에 '너풀거리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과¹⁰⁰⁾ 예레미야 23:9에는 공포 중에 '떨리는' 뺨들의 격렬한 동작을 보여준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100)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우르 Hi., חָרַב),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면서 맴돌며'(라하프 Pi., רָחַף), 자기 날개(카나프, קַנָּף)를 '펴서'(파라스, פָּרַס) 새끼를 '받으며'(라카흐, לָקַח), 자기 '날개'(에브라, אֵבְרָא, pinion) 위에 그것을 '업는'(나사, נָסַח) 것 같이"(신 32:11) 돌보신다고 말씀하신다.

32:10-11과 같은 문맥인 출애굽기 19:4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 보호, 인도하는 심상(imagery)은 우주와 이스라엘 국가의 창조에 성령님의 사역이 본질상 같은 것임을 강조한다.

홍해가 창세기 1:2의 땅의 무형-공허와 깊음 위의 흑암에 해당한다면, 그 바다 가운데를 ‘쪼개어’(바카, פָּקַד; 출 14:16,21; 느 9:11; 시 78:13; 사 63:12) 육지를 내심은 우주창조의 ‘나누는’(바달, נָדַד; 창 1:4,6,7,14,18; 비교: 욥 26:10; 38:19-20) 역사에 해당할 것이다. 그 ‘쪼개는’ 역사의 주체는 동쪽 ‘바람’(루아흐; 출 14:21), 혹은 하나님의 코의 ‘김’(루아흐; 출 15:8,10)으로 묘사된 성령님이심을 이사야와 학개 선지자는 확증한다(사 63:11-14; 학 2:5).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교회(행 7:38)가 홍해에서 집단적으로 세례 받음(고전10:1-2)과 모형론적으로 신약교회가 다 한 성령님으로 세례 받음(고전 12:13)에 해당되는 이유이다. 성령님의 창조사역이 독수리 이미지로, 독수리 날개와 연상된 천상의 영물(겔 1, 10장; 비교: 사 6장; 계 4:8; 9:9; 12:14)이나 성막의 지성소 휘장이나 속죄소 ‘그릅’(케루빔, מִכְבָּבִים)의 날개로, 신구약중간 시대의 ‘비둘기’ 이미지가¹⁰¹⁾ 신약에 전수된(예. 마 4:16) 심상이 우주와 이스라엘(교회)의 창조에 각각 연결된다는 사실은, 다른 기회에 상론하겠지만, 우주-

101) 성령님의 비둘기 상징의 문헌적 유래는 주후 2세기 바빌론 탈무드(Hagigah 15a)에 벤 조마(Ben Zoma)의 “하나님의 영은 마치 새끼 위를 품되 그들을 접촉하지 않는 비둘기처럼 수면 위를 품고 있었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기 주석가인 람비 라쉬(Rashi; 주후 약 1040-1105) 역시 이 전통에서 해석한다.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다. 영광의 보좌는 공중에서 있었고, 그 거룩하신 분—그는 찬송을 받으실지라—의 입의 영광 보좌자리에 품고 있는 비둘기 같은 그 분의 말씀에 의하여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I. Abrahams, *Studies in Pharisaism and the Gospe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4) 47-50에 인용; 사해사본의 증거를 위해 D. C. Allison, Jr., “The baptism of Jesus and a New Dead Sea Scroll,” *BAR* 18 (2, 1992) 58-60을 보라.

인간의 창조-보존-심판과 재창조-성화-영화에 나타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뜨겁고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다.

e) 장인(匠人)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1의 선포와 그 구체적인 창조가 1:3의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설명되기 전에, 2절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주창조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신다는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기초와 출발점이다.

우주창조를 신전건축 진행과정으로 묘사하는 창세기 1:1-2:3에서, 성령님은 건축 일체의 과정인 설계, 기공, 진행, 완성에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장인(匠人)"¹⁰²⁾으로 사역하신 분으로 묘사된다. 잠언 8:22-31의 원문 분석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은,¹⁰³⁾ 지혜는 창조 이전에 선재(先在) 하셨고, 여호와와의 창조 역사에 '장인'으로서 곁에 계셨으며,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천지 만물이 실제화 됨에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 만물과 특히 인간 창조에 가장 기뻐하셨다(사 40:12-17, 28-31 참조). 따라서 흔히

102) 잠 8:30의 '창조자' (아문, 𐤏𐤍𐤏)는 수메르어 움미아[ummi]에서 유래한 '장인'이란 뜻이다. 비교: 사 40:13의 '여호와와의 영'을 LXX는 '주의 지성' (누스 쿠리우, νοῦς κυρίου)이라 번역했고, 신약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전 2:16; 롬 11:34). 누스는 대체로 인간의 의지적이고 합리적인 지성과 연결되는바, 사 40:12-14의 "이해하다, 교훈하다, 보여주다, 가르치다, 지식" 등의 용어는 지성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본문은 우주 창조에 어떤 고문(顧問)도 필요 없는 여호와와의 능력을 확증한다. 사실 그분은 장인(匠人)들에게 보통 주시는 "창조적인 기술" (테부나, 𐤏𐤍𐤏 : 출 31:3)과 그분의 천상 모형을 따라 "질서[와 조화]" (미슈파트, 𐤌𐤍𐤏)를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신다(비교: 왕상 6:38; 겔 42:11). 따라서 이사야는 우주의 창조를 '여호와와의 영'이 계획하시고 착수하시므로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와의 불비교성을 설명한다. 창조는 '여호와와의 영'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하늘, 땅, 바다, 산들이 존재하게 하셨다.

103) 필자의 지도하에 기독교신학대학원 M. Div. 졸업논문인, 박준오, "잠언 8장 22-31절에 대한 주석학적 연구" (1999) 참조.

지혜를 신약의 로고스(Logos)와 연결하여(마 23:34; 눅 11:49; 요 1:1-18; 고전 1:24, 30; 골 2:3)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것보다는¹⁰⁴ 창조에 동참한 성령님의 사역에 더욱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약에서 지혜는 실제적인 행동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이다(창 41:38이하; 출 31:3).

신구약 중간시대 역시 지혜의 창조 사역에의 역할을 보여주며(지혜서 7:22; 8:1, 6; 집회서 24:3-5), 지혜를 구체적으로 피조물을 보존하는 문맥에서 여호와와 영을 가리킨다: “주의 영이 세상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함께 붙들고 있는 그는 무엇이 말해지는지를 알고 있다”(지 1:7). 이런 대조 속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계로서 내려오나니”(약 1:17)라는 말씀은 성령님을 통한 구약적인 지혜의 은사를 반영하며, 이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한다(약 1:5-8, 16-18; 3:13-18; 비교: 마 7:7-11; 눅 11:13; 신 29:29; 단 2:17-23, 27-30; 땅콩박사 George Washington Carver[1860-1943]: 지식과 지혜—잠 1:7; 29:10; 골 2:3; 고전 12:8).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야고보에게는 지혜가 같은 기능을 가지므로 야고보는 지혜 성령론(wisdom pneumatology)을 가진다: 지혜는 사람이 서도록 도우며, ‘육신’에서 구원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¹⁰⁵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님을 받으라”(요 20:22) 하실 때, 하나님의 입김, 즉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나오며(사

104) 예를 들면, J. B. Payne,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62) 171.

105) P. Davids, *Commentary on Jame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82) 56. 역시 W. R. Thompson, “The Epistle of James—A Document on Heavenly Wisdom,”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13 (1978) 7-12를 보라.

59:21 참조),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므로,¹⁰⁶⁾ 창조사역에 '가라사대'¹⁰⁷⁾와 "하나님의 영의 운행"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시편 33:6에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내면적 일치가 있다.¹⁰⁸⁾

f) 하나님의 '군대'인 우주의 '생명' 이해

(1) 하나님의 군대인 우주(창 2:1)

וְיִלְלוּ הַשָּׁמַיִם וְהָאָרֶץ וְכָל־אֲשֶׁר־בָּאָרֶץ : (바예쿨루 하사마임 베하아레쯔 베쿨-췌바암)

"그리고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들(= 그 하늘들과 그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우주창조의 대 선포요 요약인 창세기 1:1은 결론 부분인 2:1-3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3절) "천지와 '그들의 모든 군대'(쿨-췌바암, וְכָל־אֲשֶׁר־בָּאָרֶץ)가 [6일 동안] 이루고"(1절), "제 7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다"(2-3절)고 반복한다. '그들'이란 대명사는 바로 앞에 사용된 '그 하늘들과 그 땅'(우주)을 가리키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

106) 히브리어 다바르는 '말씀'과 '사건'이란 이중 의미가 있음을 논한 각주 60 참조.

107) 신의 말에 의한 애급의 창조 개념은 "Atum신의 창조" 신화나 특히 "Memphis의 신학"이라 부르는 Ptah신의 말과 창조에 대한 언급이 아주 분명하다. 자세한 논의는 J. A. Wilson, *ANET*, 3-6 및 K. Koch, "Wort und Einheit des Schöpfergottes in Memphis und Jerusalem,"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62 (1965) 251-93을 보라.

108) 사 11:4 및 성령님의 강림과 입술의 변화(사 6:5-7; 행 2:2-4; 벰전 4:11)를 참조하라. 자세한 논의를 위해 Hildebrandt(김진섭 역), 「구약의 성령신학 입문」, 74-75를 보라.

님의 군대¹⁰⁹⁾로 이해한다. 이것은 앞서 성령님의 창조사역에서 자세히 살핀 대로, 모든 피조물의 '자리매김'(형체)과 '기능'(생명력)이 성령님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만군의 여호와"(아도나이 켈바오트, מִלְכָּם הוָה) ; 이 표현은 삼상 1:3에서 말 4:3까지 274회 사용)께서 하나님 의 은혜왕국의 건설-보존-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군대이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시다(시 24:10).¹¹⁰⁾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을 잇는 족장들의 일대기 속에 엮여지는 모든 복의 체험담은 자연만물을 그 군대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중심체였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역시 자연만물을 그 군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신적 용사'(the divine warrior)와 '여호와의 전쟁'으로 묘사한 것도(출 15:3,4; 민 10:35; 시 24:8; 사 42:13; 습 3:17) 이런 맥락에서 잘 이해된다. 천지는 또한 하나님 백성의 예배적 삶의 심판대에 증인으로 등장한다(신 4:26; 32:1; 사 1:2; 미 6:2; 시 50:4).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여자의 씨'(하나님의 왕국)와 '뱀의 씨'(사탄의 왕국)간의 '원수 관계'(창 3:15)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언약 준수의 경우 이스라엘을 위하여(For Israel) 대적자들과 앞서 싸우는 여호와전쟁(승리의 신학)과, 언약 파기의 경우 이스라엘을 대적

109) 참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여정을 '하나님의 군대'(출 6:26; 7:4; 12:41; 민 10:14, 18, 22, 25)의 '전투대열'(하무쉬, מַחֲנֵיךְ : 출 13:18; 민 32:17; 수 1:14; 4:12; 참조. 본래 이 단어는 '5'[하메쉬, חָמֵשׁ]의 파생어로서, "앞, 뒤, 중앙, 좌, 우"의 5방향의 전투대열을 보여 준다)을 갖춘 가나안 땅의 정복 '원정'(military campaign)으로 이해한다.

110)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신학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왕국의 주권, 국민, 영토의 삼위 일체적 복(광장)에 대한 생명신학적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참조. 윤용진, 「여호와의 전쟁신학」(서울: 그리스, 1998); 필자의 지도 하에 기독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M. Div.), 신경철, 「모세오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쟁신학」(기독교신학대학원, 2002)을 보라.

(Against Israel)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전쟁(징벌의 신학)의 이중성이 전개된다.

신앙과 순종의 이스라엘을 “위하여”(for) 앞서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대적하여 천상의 ‘불말, 불병거’(왕하 2:11; 6:17)나, 홍해(출 14:21), 요단강(수 3:16), 기손강(수 4:20)의 기적에 자연을 군대로 사용하셨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against) 싸우시는 ‘징계의 하나님’ 역시 이방 대적들이나 한재, 기근, 염병 등의 자연 재해를 그 군대로 사용하셨다(대하 6:26-31; 7:13-14).

우주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성경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성령님의 충만에 대한 자연의 위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주의 생명력과 형체를 부여하신 분이시기에, 성령님이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물론 교회사 전반에 걸쳐 지금도 ‘기이한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군대인 우주의 하나님 은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왕국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며, 이 왕국의 중심 특성이 은혜임을 창세기 초두부터 계시록의 종결까지(참조. 계 22:21, “주 예수님의 은혜”) 명백히 밝히고 있다. 창세기 1:1-2:3은 우주(천지)창조가 왕(신)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왕국(신국)의 중심부인 왕궁(신전) 건축, 즉 부분으로 전체를 묘사하는 대유(代喻, synecdoche)인 것과, 우주는 하나님 왕국의 생명 넘치는 군대요, 그분의 은혜왕국 건설의 생명 넘치는 역군이요, 특별히 ‘신적 용사’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생명 넘치는 교향악단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성경에 언급된 우주합창단을 소개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시위하는 만물(롬 1:20), 하늘과 궁창 및 낮과 밤(시 19:1), 별들(욥 38:7; 시

148:3), 하늘과 땅(사 49:13), 하늘과 땅의 깊은 곳 및 산과 삼림(사 44:23), 산들과 작은 산들 및 손바닥을 치는 들의 모든 나무(사 55:12), 하나님의 목소리-뇌성, 지중해 파도,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 가데스 광야(시 29:3-9), 파도의 박수와 산악의 합창(메아리: 시 98:8), 돌들(눅 19:40), 시내 산 예배의 서곡인 우리와 번개와 뽀뽀한 구름과 천사의 나팔(출 19:16; 20:18; 히 12:19), 천사의 나팔(마 24:31; 고전 15:51-52; 살전 4:16), 천상의 영물들(시 29:1; 사 6:2-3; 눅 2:13-14)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창세기 1:1-2:3의 우주창조 기사의 자매편 격인 하나님 찬양시(시 8장; 19:1-6; 29장; 65:9-13; 104; 암 4:13; 5:8-9; 9:5-6)는 다시금 우주의 생명 넘치는 합창을 환기시킨다(시편 150편, 특별히 6절).

성령님은 우주를 단장하시는 분이시다(욥 26:13; 시 33:6; 비교, 사 40:13,26). 우리는 '하늘의 군대'(삿 5:20; 시 33:6; 사 40:26; 9:6)인 밤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의 합창'(욥 38:7; 시 148:3; 눅 2:13)을 듣는다. 현대 물리화학의 이론이 빛-소리-열의 자유전환을 설명하거나, 일 등별로부터 팔등별의 한 밤의 하늘은 팔도 화음계의 웅장한 대 자연 교향곡을 만끽하게 한다. 계명성 사탄의 타락과(비교: 사 14:12-15; 겔 28:13-15) 인간의 타락아래(참조: 우주에 가장 걸맞지 않는 죄인에 대한 시 104:35)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롬 8:22),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우주와 함께 합창하는 것이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나, 인간은 여전히 본체론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지닌 자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산송장 같은(엡 2:1; 딤후 5:6) 나에게 다시 생기되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본체적 형상(고후 4:4; 골 1:15; 히 1:1-3)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고전 12:3),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고전 11:7; 약 3:9; 롬 8:29; 엡 2:10; 골 3:10),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

시므로(고전 15:49; 고후 3:18; 빌 3:21; 요일 3:2),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며, 창조-섭리-심판과 재창조-성화-영화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우주군대의 지역사령관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악단이라면 인간 역시 함께 찬양하는 지휘자이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향악단의 개성 있는 악기라면, 인간은 그 악기들 중의 최상 악기인 썸이다.

인간의 존재 의미와 그 궁극적 목적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롬 11:36; 시 29:9), 이 영광은 찬양으로 고백되기에(참조: 송영(doxology)),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릇 내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 곧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사 43:7)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강조하신다. 인간은 출생신호의 “응아” 울음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입력하신 절대음 A(라)로 노래 부른다. 우주만물과 성도들을 섬기는 천사들(히 1:14)의 찬양보다도(시 150:1-2), 인간이 만든 모든 종류의 악기보다도(시 150:3-5; 소고, 수금, 비파, 제금, 현악, 통소, 나팔, 호각), 하나님이 만드신 최상의 악기인 우리의 온 몸으로, 손바닥을 치며(시 47:1), 춤을 추며(출 15:20; 삼하 6:16=대상 15:29; 시 149:3; 150:4), 특별히 목소리로 찬양하며(시 150:6; 104:33-3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III. 결론

A. 논지의 요약

우리는 서론에서 “개혁주의생명신학”이란 용어가 신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개혁주의 신학의 (1) 신학적 분류와, (2) ‘신학’(theology)의 올바른 개념과, (3) 개혁정신과 분야주권 이론에 근거하여 논증했다.

본론은 2가지 주제를 다루는 바, 먼저 “개혁주의성경신학” 발전을 위한 구약 방법론에 관하여, ‘생명’(하이, חַי)의 어의론(동의어, 반의어, 연계어)과 개념(죽음, 질병, 치유, 회복, 구원, 샬롬, 완전, 복, 생명) 연구나, 구약의 주제별 연구(언약신학과 구속사, 선교신학, 치유신학, 삼위일체론적 신학[성부신학, 성령신학, 기독교론, 메시아 사상, 신현], 하나님 왕국)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하나님의 우주를 기술한 창세기 1:1-2:3을 개혁주의 언약신학과 구속사관의 틀 속에서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구약성경이 말하는 생명신학”의 원문주석을 통하여 5가지 주제로써 그 초석을 놓으려고 하였다: (1) 창조사관(하나님의 우주창조—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하나님의 우주완성)과 그 중심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요와; (2) 창세기 1:1-3의 문예-신학적 관계를 왕궁/신전 건축의 왕적인 설계(계획)—시공(질서)—감리(조화)의 주체로 인식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요약 하고; (3) 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시공간에 나타난 ‘생명’ 이해에 관하여, ① ‘태초에’(베레쉬트, בְּרֵאשִׁית)의 고대근동 속어로서 “(하나님 왕국의) 시작에 있어서”라는 의미와, ②원시론(‘태초에’)과 종말론(‘후일에’)의 대조, ③삼위일체 하나님, ④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시공간’에 나타난 ‘생명’ 이해, ⑤하나님의 ‘영원’과 피조물의 ‘공간’에 나타난 ‘생명’ 이

해를 각각 논하였고: (4)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생명'에 대하여 ①고대 근동의 우주론 배경에서 본 하나님의 우주 창조, ②정령적 다신론인 고대 근동의 문화-종교를 경책(警責)함, ③창세기 1장에 나타난 고대근동의 정령적 다신론의 선교변증학적 고찰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5) 우주창조에 나타난 성령님의 '생명' 사역에 관하여 창세기 1:2의 원문 분석을 통해 우주만물의 '생명'(기능)과 '모양'(자리매김)을 주신 '장인'(匠人)으로서의 성령님을 조명하였고,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 무기로 사용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B. 신앙고백적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역사적 개혁주의에 근거한 생명신학의 발전을 위해 먼저 구약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살피기 위해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는 '우주창조'(창 1:1-2:3)에 국한하여 지금까지 살펴 보았다. “개혁주의생명신학”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본 논고 여러 곳에서도 이미 지적하였지만 앞으로 계속 정진되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사상, 혹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따라, 방법론적으로 철저히 성경에 기초해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철저히 성경적인 신학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문에 기초한 “구속사적 성경 해석 방법론”이 요청된다.

②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이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이라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적 패러다임은 이러한 종교개혁주의 신

학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인 '언약신학'의 틀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본질은 '생명'이며, '생명의 약속과 성취'가 곧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 개혁주의의 '언약신학' 패러다임에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의 내용을 철저히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담아냄으로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적 생명신학을 접목함과 동시에,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지평을 발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개혁주의생명신학"에 기초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은 철저히 '생명'으로 자아계시하시는 삼위일체론적 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론, 기독교론, 혹은 성령론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이 아니라, 스스로 '동일본질'의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사역을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속사적 패러다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성경적으로 잘 균형 잡힌 신학적 구조가 정위될 것이다.

④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관계론적 생명'이해에 기초하며, 이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 인간 - 피조세계"의 유기적인 관계의 패러다임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철저히 실천지향적인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주의생명신학"은 기독교 철학, 자연과학, 정치/경제, 사회과학, 기독교 세계관 등의 인접 제 학문분과들 뿐만 아니라, 목회학, 상담학 등의 실천신학 분과들 및 기독교 음악, 예술, 문학 등을 통한 총체적인 "기독교 생명 공동체 문화"의 창달을 위한 적절한 신학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은혜로 설립자 장종현 박사의 전폭적인 헌신과 주창으로 인해 백석학원은 이제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세계교회사에 유래 없는 “성경읽기와 필사”의 필수과목을 주창하여 신학교육 전반이 반드시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실천의 장이 되는 틀을 놓게 되었다. 또한 “개혁주의생명신학회”가 그 실천의 장을 세계로 확대하도록 대표고문으로서 최상의 후원자가 되셨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 만큼 일함 신실하신”(딤후 2:13) 성삼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 속에서 백석학원 산하의 모든 교직원, 학우들과 예장백석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이론과 실제에 앞장서서 뜨겁게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신앙고백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학문의 대상이 되는 모든 피조물과 학문의 주체가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게 한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설교, 찬양, 기도, 전도, 교육, 봉사에 모범적일 수 있겠는가? 바로 그 해당 주제에 대하여 성경의 진리로 머리가 차잡고, 그 체험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운 ‘개혁주의생명신학자’가 아니겠는가?

불신자들이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김”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사도바울은 “경배와 섬김”이란 단어에서 가슴이 불붙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롬 1:25)이라는 신앙고백적 영광송을 외친 후에야 다시 그 논증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것이 20세기 마지막 청교도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되는 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 박사가 즐긴 “불붙은 논리”(logic on fire)이며, 신약성경이 자주 보여주는 논리적 흐름에 별 상관없는 감성적 찬양, 즉 소위 “파격적 문장”(anacoluthon 혹은 solecism; 참조: 롬 9:5; 11:36; 16:27; 엡 3:21; 빌 4:20; 딤후 1:17; 벧전 4:11; 벧후 3:18;

유 25; 계 1:6)이 보여주는 도전과 격려이다. 이것이 구약성도들이 온갖 형태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매듭짓는 이유이다(참조: 시편 5권의 각 절어—41:13; 72:18-19; 89:52; 106:48; 150:1-6).

천국여정에 신앙고백적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현장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의 네 영물과 24 장로들(계 4:8-9-11; 5:9-10; 11:16-18; 19:4), 천천만만 천사들(계 5:11-12; 7:12), 천국성도들(계 7:10; 11:15; 12:10-12; 15:3-4; 19:1-3, 6-8), 그리고 우주만물(계 5:13)에 어울려 천국 합창대원이 되는 영광인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

참고문헌

- 김구원 역, 「하나님 나라의 서막」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7. = Kline, Meredith G.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Overland Park, KS: Two Age, 2000.
- 김동진 역, 「'서술' 로서의 모세오경」(상) 서울: 새순, 1994; 정충하 역, (하) 서울: 새순, 1995. = Sailhamer, John H. *The Pentateuch as Narrative: A Biblical-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2.
- 김명자 역,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까치, 1999. = Kuhn, Thoma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김은수.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 시간과 영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주의 신학」 23 (2008.4), 153-195.
- _____. "시간과 영원에 대한 성경적 이해." 「조직신학연구」 10 (2008.5), 197-250.
- _____.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I): 존재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이해", 「한국개혁주의 신학」 24 (2008.10), 120-163.
- _____. "개혁주의생명신학의 신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 (III): 생명의 소통을 중심으로.(근간).
- 김의원 역,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Robertson, O. Palmer *The Christ of the Covenants*. Nutley, NJ: Presbyterian & Reformed, 1980.
- 김진섭. "성령님적 성경해석과 목회." 「기독교신학저널」 7 (2004년 11월), 23-81.
- _____. "구약의 선교학적 읽기." 「기독교신학저널」 8 (2005 봄): 7-33
- _____. "은혜와 진리의 사람." 「백석춘추」 8 (2008년 3월: 서울: 백석출판사), 662-680.
- _____. "구약성경이 말하는 생명신학—창세기 1:1-2:3을 중심으로." 「제1차

백석대학교 개혁주의생명신학 포럼」 천안: 백석대학교 백석선교문화원, 2008. 12. 15-74.

_____.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성장과 연합을 위한 비전과 사명—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의 개혁주의생명신학 정체성을 중심으로.” 『백석신학저널』 17 (2009, 가을호), 131-175.

_____. “칼빈과 경건: 그 신학적 기초.” 『칼빈과 21세기』 전광식 엮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149-194.

_____. 「모세오경」 백석대 신학대학원 강의안; 서울: 한국성경학연구소, 2010.

_____. “구약의 성령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말씀: 주제별 설교 시리즈: 성령,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250 (2010 4월호), 22-41.

_____. 역. 「구약의 성령신학 입문」 서울: 이레서원, 2005. = Hildebrandt, Wilf.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y, Mass.: Hendrickson, 1995.

_____. 역. 「시내산의 강림하신 하나님: 성경과 고대 근동의 언약과 신현」 서울: 이레서원, 2009. = Niehaus, J. J. *God at Sinai: Covenant & Theophany in the Bible and Ancient Near Eas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_____. 역. 「구약의 치유신학」 서울: 대서, 2010. = Brown, Michael L. *Israel's Divine Healer*. Grand Rapids: Zondervan, 1995.

김태수 역. 「성경과 치유」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 Wilkinson, John. *The Bible and Healing: A Medical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8.

류호준 편역.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언약강조 현상.” 『존 H. 스택 구약신학: 본문과 해석』 서울: 솔로몬, 2000, 80-120.

손석태 역. 「창세기의 복음」 서울: 솔로몬 1999. = Gage, Warren A. *The Gospel of Genesis: Studies in Protology and Eschatology*.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4.

- 신경철, "모세오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전쟁신학." 석사논문. 서울: 기독교신학대 학원, 2002.
- 오광만 역,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서울: 그리심, 2002. = Robertson, O. Palmer. *Covenants: God's Way with His People*. Philadelphia: Great Commission, 1987.
- 유태화, "Herman Bavinck의 삼위일체론." 「기독교신학저널」 5 (2003), 71-98.
- 윤용진, 「여호와의 전쟁신학」 서울: 그리심, 1998.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2003.
- 이승구 역, 「개혁주의 신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Bavinck, H. *The Doctrine of God*. Trans. W. Hendricksen. Grand Rapids: Eerdmans, 1951.
- 황창기, 「예수님, 교회 그리고 나」 서울: 성광문화사, 2005, 161-198('성경적 세계관').
- al-Fouadi, A.-H. A. *Enki's Journey to Nippur, The Journeys of the Gods*. Ph. D. di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9.
- Collins, Jack, "Discourse Analysis and the Interpretation of Gen. 2:4-7."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1:2 (fall 1999), 269-76.
- Ferrara, A. J. *Nanna's Journey to Nippur*. Studia Pohl SM 2.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73.
- Ferris, P. W. Jr. *The Communal Lament in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Atlanta, GA: Scholars Press, 1992.
- Futato, Mark D, "Because It Had Rained: A Study of Gen. 2:5-7 with Implications for Gen. 2:4-25 and Gen. 1:1-2: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0:1 (spring 1998), 1-22.
- Gwaltney, W. "The Biblical Book of Lamentations in the Context of Near Eastern Literature." In *Scripture in Context II*, ed. W. Hallo, J. Moyer, and L. Perdue.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191-211.
- Hall, Mark. *A Study of the Sumerian Moon-god, Nanna/Suen*. Ph. D. diss.

-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 Hesselink, I. John. *On Being Reformed*. Ann Arbor: Servant Books, 1983.
- Holladay, William. *Jeremiah* vol. 2. Hermenia: Minneapolis: Fortress, 1989.
- Horowitz, Wayne. *Mesopotamian Cosmic Geography*. Mesopotamian Civilizations 8;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8.
- Jordan, James B. *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Eugene, OR: Wipf & Stock, 2000.
- Karlberg, Mark W. *Covenant Theology in Reformed Perspective: Collected essays and book reviews in historical,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Eugene, OR: Wipf and Stock, 2000.
- Kim, Eunsoo. *Time, Eternity, and the Trinity: A Trinitarian Analogical Understanding of Time and Eternity*. Eugene, OR: Pickwick, 2010.
- Kutcher, R. and C. Wilcke, "Eine Ziegel-Inschrift des Königs Takil-ilissu von Malgium, gefunden in Isin und Yale",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68 (1978), 95-128.
- Kuyper, Abraham. *Encyclopedia of Sacred Theology: Its Principles*. J. H. de Vries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897.
- Lampe, G. W. H.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61.
- Liddell, Henry G. and Robert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7.
- Park, Chan Ho. *Transcendence and Spatiality of the Triune Creator*. Ph. D. dis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3.
- _____. "Space" In *Global Dictionary of Theology*. William A. Dyrness ed. Downers Grove: IVP, 2008, 845-847.
- Payne, J. B. *The Theology of the older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62.
- Poythress, Vern S. *Science and Hermeneutics: Implications of Scientific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Foundations of Contemporary Interpretation v. 6; Grand Rapids: Zondervan, 1988), 160-161.

- Sailhamer, John H. *Genesis Unbound: A Provocative New Look at the Creation Account*. Sisters, OR: Multnomah, 1996.
- Sauren, H. "Besuchsfahrten der Götter in Sumer." *Orientalia* NS 38 (1969), 214-36.
- Shuchat, Wilfred. *The Creation according to the Midrash Rabbah*. New York: Devora, 2002.
- Sjöberg, Å. and E. Bergmann, *The Collection of the Sumerian Temple Hymns. Texts from Cuneiform Sources 3*. New York: J. J. Augustin Publisher, 1969.
- VanGemeren, Willem A. ed. "Topical Dictionary",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 Vasholz, R. I. *Pillars of the Kingdom*.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7.
- Waltke, Bruce K.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_____. *An Old Testament Theology: an exegetical,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7.
- Walton, John H.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9.
- Warfield, B. B.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ew York: Oxford, 1931.
-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VP, 2006.
- _____. *Knowing God the Father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7.
- _____.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5.
- _____. *Knowing the Holy Spirit Through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2006.
- Young, Edward J. *Studies in Genesis O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3.

Abstract

Reformed Life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Focused on Genesis 1:1-2:3

Jin Sup Kim

Baekseok University, Old Testament

Dr. Jong Hyun Chang, in 1976 founder of the Baekseok schools (Baekseok University, Baekseok Arts University, Baekseok Culture University, and Baekseok Theological Seminary, and 7 Graduate Schools) as well as in 1978 the first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Baekseok), has recently raised the vital importance of the two propositions, "Theology is more than a science" as well as "Practice of the Reformed Life Theology".

In the Introduction the validity of the term, "Reformed Life Theology" is perused with respect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Reformed theological disciplines, the concept of "theology", and the "Reformed spirit of Sphere Sovereignty".

The Main Body attempts first to explain the methodology of "Reformed Life Theology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limit of our discussion. Then Reformed Life Theology focused on Genesis 1:1-2:3 is demonstrated in relation to the Biblical world view, such as creation-fall-redemption-

consummation, literary and theological analysis of Genesis 1:1-3, understanding "life" manifested in the eternity of God and time of the creation, understanding life in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and the "lif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In the Conclusion, our discussion is summarized and a further comment is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a confessional "Reformed Life Theology".

Key Words: theology, Reformed Life Theology, methodology of Reformed Life Theology, creation-fall-redemption-consummation, life